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금주의 기도

공의로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기인의 후에 소동과 고모리를 진멸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어 지구촌에 심판의 채찍을 드심을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금주의 말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3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50호 2011년 9월 10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쓰러진 상처 뒤로하고 내일 향해 전진

## 퓨리서치, 9.11테러 10주년 맞이 설문조사 결과 발표

9.11테러 사태가 이제 10주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집단의 식에는 여전히 그날 악몽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뚜렷하기만 하다. 실제로, 거의 모든 미국인들은 국제무역센터(WTC)가 테러를 당하는 순간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남겼고 미국은 달라졌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는 9.11테러 사태 이후 10년간의 미국 사회의 변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진단한 설문 기사(United in Remembrance, Divides over Policies: Ten Years after 9.11)를 발표했다.

미국 본토에 대한 알카에다의 테러에 대한 효과적인 반테러 정책에 대한 의견들이 정치권에서는 분분했고, 9.11사태 이전에 미국이 행한 잘못 즉 "일방적인 힘"으로 몰아부친 정책들이 테러의 단초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반성어까지 이어졌다.

이에 대해 미국인들은 43%가 "예"라고 응답했고, 45%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테러가 감행된 2001년 11월 말에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미국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물음에 33%가 찬성을 55%가 반대를 보인 수치에 비하면 10년 만에 두 자리 이상 증가했다. 그만큼 미국인들은 동 사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다.

전반적으로, 미국인들은 오늘 당장 10년 전과 같은 테러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응답을 보인다. 즉 23-39% 정도의 미국인들이 미국 본토에서 동일한 테러나 그 이상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됐지만, 아직까지 9.11 테러에 가담했던 주요 용의자들이 아직 체포되거나 사살되지 않았기에 테러에

대한 잠재적인 불안감은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라크나 아프간에 대한 전쟁들도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공격의 가능성을 약화시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불과 25%만이 이 전쟁들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소위 "대테러 전쟁"인 아프간과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참전이 오히려 테러리즘의 위험을 증가시켰거나 별다른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9.11 테러가 10년을 맞은 현재, 많은 미국인들은 동 사건이 서구와 무슬림 세계간의 "문명의 충돌"을 촉발시켰다는 담론을 부정한다. 거의 60%의 미국인들이 동 사태는 소규모의 극단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간의 갈등이 9.11 사태를 유발시켰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미국사회와 지구촌에 일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해서는 경계와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있다. 67%의 미국인들이 미국 내에서의 이슬람 극단주의의 부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고, 반면 73%는 지구촌에서의 동 원리의 성행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무역센터 자리에 세워지는 새 건물

그러나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로 무슬림 미국인들 역시 이점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8월에 보고된 미국에 사는 무슬림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설문 조사에서 대부분의 무슬림 미국인들이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지구촌과 미국 사회에서의 극단적 이슬람주의의 부흥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거의 모든 미국인 성인들이 10년 전의 비극에 대해서 또렷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30세 미만 즉 10년 전 8세에서 19세 사이에 있었던 연령층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낙인으로 기억되는 것

로 밝혀졌다.

미국인들이 겪은 역사적 사건 중에 9.11테러 사건은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보다도 더 충격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1940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사건 당시 8세 이상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1. 9.11테러 사태(2011)-97%
2. JFK 암살사건(1963)-95%
3. 오사마 살해(2011)-81%
4. 인류 최초로 달 착륙(1969)-80%

(3면으로 계속)

## '신음하는 피조물에게 자유와 희망을'

환경단체, 교회나 가정에서 지킬 수 있는 환경보존원칙 소개

일본 열도를 강타한 쓰나미 재앙, 한국에서 130만 마리 이상의 소와 돼지를 대량 학살하게 만든 구제역파동, 최근에는 8월말 미 동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린 등 이상기후와 이상기온에 따른 지구촌 폭설과 폭우, 가뭄과 기근은 이제 더 이상의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피조세계와 더불어 한 몸이며, 같은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의 질서를 거역하는 피조물은 '인간' 뿐이며 우리의 욕망이 아무 생명을 살 수 없는 오염된 지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상상하는 재난이나 재해는 더 이상 천재와 인재로 구분할 수 없는 미증유의 재난이 언제라도 가능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다. 따라서 많은 환경단체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환경 재앙을 보며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이 필요하며 크리스천들이 먼저 자연 보존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환경 지킴이로 변화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먼저 한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고통에 초점을 맞춘다. 가축의 질병 문제는 단순한 의학적 문제를 넘어 인간의 지나친 육식 소비문화와 값싸고 많은 양을 공급하기 위한 열악한 사육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이러한 고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단체들은 크리스천들에게 주일만큼은 고기를 먹지 말자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즉 상품화된 동물들의 삶을 반성하고, 축산업을 위해 파괴된 수많은 열대우림의 훼손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10억 명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 동물이나 먹는 곡식의 방향을 바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육식은 채식에 비해 에너지의 낭비가 심하며, 물의 사용도 더 많은다는 지적이 고기 없는 주일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기독교환경연대는 한 사람의 채식이 매년 1인당 1만2천 평의 나무를 살리며, 50년이면 1인당 약 6만 평의 숲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3면으로 계속)



2면  
시명 성취 위해 용기가 필요하다!



7면  
종교다원주의 연구 (4)  
조진모 목사(합동신학교 교수)



15면  
불기둥  
김홍도 목사(금란교회)



13면  
크리스천의 영성은  
훈련되어지는 것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 2012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2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1년 8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1년 9월 18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                 |              |            |
|---------------------------|-----------------|--------------|------------|
| 출출(표지)                    | 3.5cm × 4.5cm   | \$600.00     |            |
| 전면칼라                      | 17cm × 24.5cm   | 표지내면(2면, 3면) | \$3,000.00 |
|                           |                 | Back 면       | \$3,500.00 |
|                           |                 | Back 면 내면    | \$2,500.00 |
|                           |                 | Inside       | \$2,200.00 |
|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                 |              |            |
| 전면흑백                      | 15.5cm × 23.5cm | \$1,000.00   |            |
| 전면 1/2                    | 15.5cm × 5.8cm  | \$600.00     |            |
| 전면 1/4                    | 15.5cm × 5.8cm  | \$350.00     |            |
|                           | 7.7cm × 11.7cm  |              |            |
|                           | 15.5 × 2.8cm    | \$250.00     |            |
| 전면 1/8                    | 7.7cm × 5.8cm   |              |            |
|                           | 7.7cm × 5.8cm   |              |            |
| 출출 Listing                | Listing size    | \$100.00     |            |
| 축하광고(사진삽입)                | 3.7cm × 7.5cm   | \$200.00     |            |

|        |                |                 |
|--------|----------------|-----------------|
| 유료광고안내 | ① 교회(기관)이름     | 한글 :<br>영문 :    |
|        | ② 교회(기관)주소     |                 |
|        | ③ 교회전화 & 팩스    | Tel.( ) Fax.( ) |
|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 한글 : 영문 :       |
|        | ⑤ 사택주소         |                 |
|        | ⑥ 사택전화 & 팩스    | Tel.( ) Fax.( ) |
|        | ⑦ E-mail Add.  |                 |
|        | ⑧ Web Add.     |                 |
|        |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                 |

\* 위키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세요.





# 시론

## 소망으로 여는 가을



송상헌 목사 (로스웰장로교회)

요즘 들어 우리의 주위에는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경제 침체가 지속되며 double-dip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5-10년 정도는 어려울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은 서민들의 마음을 한층 무겁게 합니다. 일류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얻지 못한 부모의 그늘로 다시 돌아오는 청년 실업자들은 부모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대학생 자녀의 비싼 학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모의 가슴은 겹겹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일궈놓은 비즈니스를 포기해야 하는 가장의 눈물은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경제의 어려움 외에도 계속되는 천재지변 앞에서는 미국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지진으로 북동부 지역은 허리케인 아이린(Irene)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뉴욕 시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하철 전면운행중지를 명했고, 원자력발전소는 일시 폐쇄되고, 항공기 9,000여 편의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인명피해와 400만 가구가 정전사태를 경험하고, 다리가 끊기고 폭우로 침수를 당하는 등 아이린은 매섭게 활취고 지나갔습니다. 5대째 살았던 100년의 삶의 보금자리가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집 앞에서 눈물을 그치지 못하는 여인의 모습 앞에서 마음이 아려옵니다.

허리케인 아이린의 피해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열대성 폭풍 허리케인 Lee가 루이지애나 주 일부 지역을 침수시킨 뒤 대서양 연안 동부지역 쪽으로 올라오면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를 뿌리며 동남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주를 비롯한 남동부의 많은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대서양에서는 또 다른 허리케인 Katia가 시속 100마일의 위력을 지닌 채 미국 남동부 쪽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CNN을 통해 연일 미국 동부 지역의 허리케인의 피해를 듣고 있던 중에 갑자기 LA에도 황소리와 함께 4.2도 강진의 지진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해안가에 파도가 치듯이 온갖 재난이 전 미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온통 어려움입니다. 기업인들이 겪는 막대한 경제 손실과 서민들의 지극히 평범하고도 작은 소망마저 쓸어버려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미국과 온 세상을 보면 고통의 연속이요 눈물 날 일만 있는 것 같습니다. 좌절의 연속이요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여전히 굳건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아레', '에베에셀'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마28:18-20). 어려움 많은 땅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소망을 보십시오(렘29:11-13).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공중에 사무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시36:5-6).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시34:8).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시121:1-2) 좌절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사41:10). 그러면 아픔의 눈물이 소망의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구속하시고 역사의 무대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며 소망을 전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두셨습니다(마5:13-16). 잔잔한 웃음으로 주위의 많은 지체들을 섬기십시오. 소망의 말을 나누어 주십시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벧전1:4). 사면초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을을 소망으로 열어가십시오. 그 활짝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 사명 성취 위해 용기가 필요하다!

### 국제제자훈련원, 앤디 스탠리 목사의 리더에게 요구되는 3가지 용기 소개

미래 사회는 누가 만들어갈 것인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세계화와 정보화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를 포함해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다. 불확실성이 미래의 특징이라면 그것을 헤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은 다음 세대 리더들의 몫이다.

노스포인트커뮤니티교회의 담임목사인 앤디 스탠리(Andy Stanly)는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음 세대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관련해 자신이 과거에 알고 싶어 했고 지금 알고 있으며 내일의 리더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원리들을 능력, 용기, 명확성, 훈련, 인격의 다섯 가지 핵심 자질로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다음 세대의 리더들은 자신의 강점을 찾아서 개발하고 신중한 용기를 가지며 불확실성 속에서도 분명한 지시를 내리며 리더십 코치를 두어 꾸준히 훈련해야 하며 성숙한 인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리더는 도전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리더에게 필요한 용기는 도전하는 용기만이 아니다. 스탠리 목사는 리더에게 필요한 또 다른 세 가지 용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1.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Good to Great"을 쓴 짐 콜린스는 "평범한 회사를 위대한 회사로 만들어낸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의 목록만큼 '금지사항'의 목록도 잘 활용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따라서 리더는 잠재력이 가장 높은 한 가

'아니오' 라고 말할 줄 아는 것과 함께 리더는 조직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피터 센게는 "현실에 대한 정확하고 통찰력 있는 관점은 명확한 비전만큼 중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리더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조직의 현실을 직시할만한 능력을

#### 3. 꿈을 꾸는 용기

마지막으로 리더는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에 관해 꿈을 꾸야 한다. 위대한 리더들의 공통점은 재능이 가장 뛰어나거나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 고에 제한을 두지 않는 사람이었다.

창조할 수 없다. 두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한다면 새로운 어떤 것도 이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없다. 더 중요한 사실은, 꿈이 없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꿈이 없는 리더는 리더가 아니다.

당신이 책임지는 조직을 건강하

## 리더는 능력, 용기, 명확성, 훈련, 인격의 핵심자질 필요 기회는 신중하게 선택하고 주의 분산시키지 않아야 현실에 대한 정확하고 통찰력 있는 관점 가져야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에 관해 꿈 꾸야

지 기회에 집중하고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야 한다. 집중을 못하면 비전을 잃게 되고, 비전이 분명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별로 상관없는 일들로 인해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하는 조 직은 결코 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리더가 '아니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사람들을 실망시키거나 자기만 제외되거나 좋은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운 것이다. 그런 점에서 리더는 기회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조직의 비전과 목표와는 상관없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아니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한 계 또는 현실이라는 이유로 꿈꾸는 것을 포기하거나 기껏 꾸는 꿈도 현실에 맞춰진 꿈인 경우가 많다. 꿈이 실현되지 못할 때 오는 좌절과 상실을 알기에 꿈을 꾸는 것은 그야말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따를 만한 리더는 현실이 아무리 비판적이고 당혹스럽더라도 현실과 대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고 노력한다. 그러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을 알기 위해 혹독할 정도로 노력해야 한다. 충신보다 간신을 선택한 왕조의 말로가 어 떤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한다.

고 탁월하게 만들기 위해 리더로서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용기는 무엇 인가? 두려움은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용기를 잃는다면, 당신은 리더가 아니라 리더의 위치에 있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 지 말아야 한다.

|   |  |  |
|---|--|--|
| <b>미주크리스천신문</b><br>The Korean Christian Press   |  | <b>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b><br><b>편집국장서리: 유원정</b>  |
| <b>L.A. Office</b><br>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br>Tel:(213)383-0200(대 표) (323)665-0009(광고국)<br>Fax:(213)380-9951(편집국) (323)665-0046(광고국)<br>E-mail: la@chpress.net | <b>N.Y. Office</b><br>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br>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br>Fax:(718)886-0074(대표)<br>E-mail: ny@chpress.net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

#### 2. 현실과 대면하는 용기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Midwest University

SINCE 1986

www.midwest.edu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with Concentration in TESOL**  
**MASTE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Divinity M.Div.**  
**D.Mi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Leadership, Church Music, Mission Studies

###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원격교육(On-Line) 강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 학위 취득

###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 F-1 VISA 발급 (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 교육)
3. 수시 입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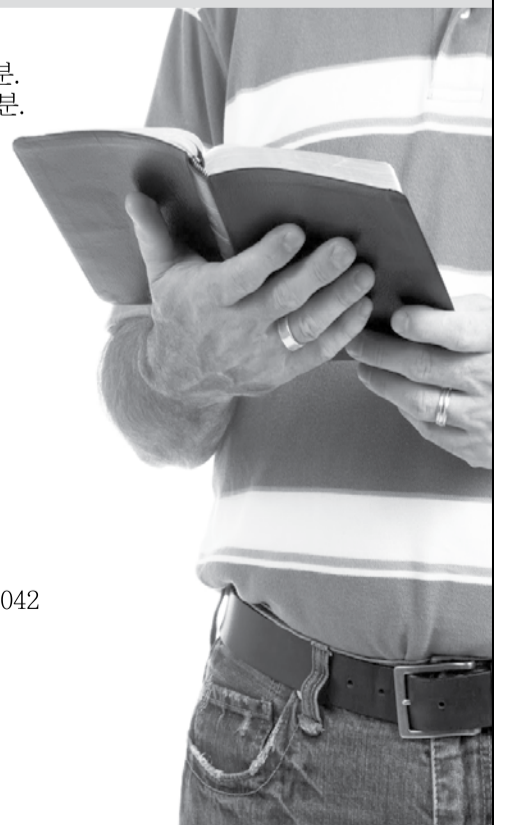
##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 E-mail. usa@midwest.edu

# 담임목사 청빙공고

예담 장로교회는 Huston Texas 에 자리 잡고 있으며 1988년도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1. 자격 정규신학대학교 졸업하신 분. 목사 안수 후 목회 경력이 5년 이상 되신 분. 이중 언어(한국어 및 영어)구사 가능하신 분. 연령 은 39세 49세 사이 합법적으로 세금보고 가능하신 분
2. 제출서류 이력서(한글 및 영어) 각 1통 목회 비전 1통 신앙고백서 1통 신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통 목사 안수 증명서 사본 1통 본인 및 가족사진 각 1매 추천서 1통 최근 설교 2편(동영상 파일)
3. 제출기간 2011년 9월 17일 까지
4. 제출처 Elder, Chill Ko 110 Lakeside Valley Dr. Houston, TX 77042
5. 기타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e-mail: how2580@gmail.com 교회웹사이트: www.ydpch.org 휴스턴 예담장로교회 청빙위원회 8381 Westview Dr. Houston, TX 77055



# 휴스턴 예담장로교회



# 쓰러린 상처 뒤로하고 내일 향해 전진

(1면에서 계속)

5. 헬렌저호 폭파(1986) - 79%
6. 킴복사 암살 사건 (1986) - 72%
7. 닉슨 대통령 하야(1974) - 71%
8. 오클라호마 시 폭발(1995) - 70%
9. 베를린 장벽 붕괴(1989) - 58%
10. 진주만 폭격(1941) - 89%

따라서 1940년대 당시 미국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본에 의한 하와이 진주만 폭격 사건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건으로 9.11테러 사태는 비견된다고 할 수 있다. 진주만 폭격 사건을 목격했던 미국인들에게 9.11테러 사건은 일종의 순환 그리처럼 진주만 폭격 당시의 정신 장애 즉 일종의 공황이나 패닉 상태로까지 몰고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61%의 미국인들은 9.11테러가 미국인들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고 응답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인들의 여행과 같은 일상에서 안보 의식 그리고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일단 전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2009년 1월 당시 그의 업무 평가치는 고작해야 24%에 머물렀다. 그러나 9.11사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그의 업무를 현재 평가하면 60%에 육박하는 미국인들

이 그의 정책 수행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9.11 당시 흑시라도 미국의 잘못된 외교정책이나 미국 이미지가 동 사태와 같은 참담한 비극을 불러 일으키게 된 단초가 되지 않았던가? 라는 반성과 성찰에 55%의 미국인들이 부정반면에, 현재는 43%의 미국인들이 미국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공화당원들은 65% 이상이 이러한 반성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지만 민주당 공화당원이 아닌 미국인들은 50% 정도가 미국의 외교정책이나 패권주의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를 막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들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는 미국인들이, 인권 논쟁에도 불구하고 40% 정도에 이르고 있다.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57%의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미국인임을 밝힐 수 있는 일종의 ID카드를 소지해 경찰이나 공권력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을 정도이다. 이 수치는 지난 2001년에는 70% 이상의 찬성을 받았으나 2002년 8월 이후 53%로 하락되다가 거의 같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인들은 정부가

테러 방지나 역제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검열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관대한 편이다. 즉 42%의 미국인들이 정부가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물품들에 대해 검열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고, 29-68% 정도의 편차로 정부가 개인의 전화기록이나 이메일을 검열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9.11사태를 회피해 당한 미국인들은 급진적, 극단적 이슬람주의의 발흥에 경계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2/3 이상의 미국인들이 미국 사회에서의 동 원리의 발흥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수치는 지난 2007년 4월 78%까지 증가했다가 감소한 수치이다.

결론적으로, 퓨포럼 리서치의 이번 설문조사는 미국인들에게 9.11사태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낙인처럼 미국인들을 일깨워주는 촉진제가 됐다는 소위 고진감래(苦盡甘來)의 열매를 가져다 준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위치와 자세를 다시금 바로 잡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대테러 전쟁과 같은 가능한 수단이나 방법 그리고 지구촌에서의 미국의 외교정책들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진영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비전이나 대안을 가진 리더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다.

# ‘신음하는 피조물에게 자유와 희망을’

(1면에서 계속)

또한 가축이 뿜어내는 탄소가스를 줄일 수 있어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효과적이며, 기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고기를 먹어야 하는 육식에 호가라면 “동물의 고통과 희생을 묵상하고, 고기를 먹더라도 유기농으로, 학대받지 않고 자유롭게 길러진 ‘로컬 미트’를 먹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고기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상품이다. 또한 많은 양의 고기 섭취는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채식으로 지구를 살릴 수 있다.

기후변화에 가장 큰 요인은 육식을 위해 동물을 사육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축산으로 인한 메탄은 이산화탄소의 23배의 온실효과를 가져오고 이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의 296배의 온실효과를 가져온다.

육식은 채식보다 80배의 땅이 필요하다. 즉 1명이 육식을 할 때 6,000평이 필요한데 그 면적의 넓이는 80명이 채식할 때 필요한 면적이다. 현재 지구 육지의 26%가 가축 방목으로 사용되며 전 세계 경작지의 1/3이 가축사료 생산을 위해 쓰이고 있다.

고기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상품이다. 또한 많은 양의 고기 섭취는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채식으로 지구를 살릴 수 있다. 한편 환경을 지켜나가는 크리스천으로 살아 가려면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



1.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자.  
2. 대중교통 이용하자.  
3. 합성세제 사용하지 말자.

4. 중고용품 사용하자.
5. 오늘도 물과 전기 아껴 쓰자.
6. 육식을 줄이고, 음식을 절제하자.
7. 칠일은 하나님도 쉬셨다. 시간에 쫓기지 않게 살아가자.
8. 소비광고에 한 눈 팔지 말자.
9. 작고, 단순하고, 불편한 것을 구하자.
10. 십자가 정신으로 이웃을 돕자.

결론으로, 오늘날 여러 가지의 생태 환경의 위협들은 이제 우리 바로 앞으로 다가왔고 그로인한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인간들의 몫이 되었다. 어쩌다가 우리는 스스로 이런 재앙의 구렁이 속을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현상들은 이제 자연과 환경에 대한 무분별한 훼손을 자행한 인간들에게 경고의 수준을 넘어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해로 이어지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구제역 사태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현상으로 우리가 고통 받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인간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자연을 폭압하여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일지 모른다. 이제 우리는 돌이켜 자연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개하고 변화하자. ‘나 하나쯤이 이런 사태를 만들었듯이 나 하나부터’ 시작하는 노력이 지구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는 영적 습관

57편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의 마음 상태가 본문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4절). 다윗은 아주 위험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어떤 인물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 인물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하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기록은 다윗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록한 것이 다윗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항상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이 훈련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이라는 것이서 벗어나려면 끊임없는 믿음으로 생각 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살기 힘들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인도하셨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이 어떻게 나를 보호하셨나?’를 위하여 일평생 소망과 즐거움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느냐를 보면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릴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하였느냐를 말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보게 하여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생활을 할 때에 어려움은 쉽게 느끼면서, 그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하고 계셨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는 함께하고 있는 걱정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환경은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유일한 복의 환경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보다 크시고 풍성한 하나님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저를 향한 귀한 마음의 선물들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인생이 쫓겨 풀이 더 흐르는 부요한 땅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굴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그 마음은 두려움, 불안, 멸망, 원망 쪽으로 끌려갔겠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1절).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시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보살핌이요, 은혜입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그의 생각은 ‘주께로 피하나다’입니다. ‘주께로..... 주께로.....’,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태양의 힘으로 해바라기가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은혜는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오늘도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실에서 사로잡혀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무엇인가 이루고 계시는구나. 사상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다윗에게 구원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주께로 피하나다.’ 즉 주께로 갔더니 주께서 그 다음 단계로 복을 주십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어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2절). ‘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루고 계시는구나. 사상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하는 믿음을 채워 주십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니 점점 자유함을 받습니다. 걱정과 불안에서의 자유함! 내 삶이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은 나에게도 복입니다. ‘아, 아버지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 아버지께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이저기를 원하나이다” (5절).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각의 위치를 산 정상에 오르게 하심으로 다윗이 자기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소원은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데 있다’는 큰 소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7절). 다윗이 굴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시는 것을 볼 때에 찬양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었습니다.

눈을 열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읍시다. 주인의 뜻을 나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실 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읍시다. 그 믿음에서 찬양이 솟아나며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문제의 동굴 속에서도 문제를 바라보는 대신에 영적으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이루심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누리면서 삽시다. 내 속에서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삽시다.

한국의 경기도 안양소재의 갈멜산금식기도원 담임인 **조성근목사**가 LA에서 기도성회를 인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 미주 갈멜산 기도성회



**강사\_ 조성근목사**

-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담임
- 나사렛 대학교 겸임교수
- GST대표
- KWMA 운영이사
- 홍신대학교(Th.M/Th.D.cand)
- 미국 ORU(D.Min)

**일시** 1차 9월 27일(화) ~ 10월 1일(토)  
2차 10월 3일(월) ~ 10월 6일(목)  
매일 오후 7시 부터 9시  
\* 주일은 기도성회를 하지 않습니다.

**장소** 3407 W 6th St. Suite 800  
Los Angeles CA 90020(로얄빌딩)  
집회문의(213)514-0039 / (213)393-3131

**주최** 갈멜산금식기도원  
www.galmelsan.or.kr

##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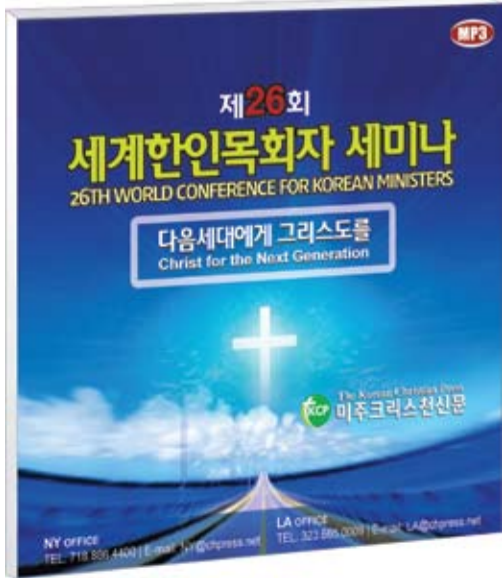
### 강의 CD(MP3) 발매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지난 5월 2일부터 5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사우스 포인트 호텔에서 개최한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세미나의 강의 20편 전체가 한 장의 CD(MP3)로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에 그리스도를”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8명의 전문 강사들이 복음에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2세대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시키며, 축소되어가는 주일학교의 부흥과 복음 전파에 대해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교육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7강의(목회자, 평신도 각각)와 3회의 저녁영성집회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이번에는 특히 큰 호응을 받았던 평신도지도자 강의의 CD로 제작했다. 총 소요시간 40시간. 3개의 CD(목회자강의 2개, 평신도지도자 1개)로 묶어 가격은 30달러.


강사는 김홍도, 지용수, 소강식, 박재호, 황의영, 여운세, 송몽길, 이영섭, 김만형, 김상덕, 조일규, 홍민기, 송규식, 김혜천, 박현남, 김승연, 장영춘 목사로 강의한 순서대로 되어있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30달러**  
(미국내 우송료 포함,  
타 국가는 우송료 별도)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 목회칼럼

##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 올 가을을 어떻게 보내 시렵니까?

아이 폰, 아이 패드를 잇달아 내어놓으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놀라게 하며 부와 명예를 거머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사임하자, 회사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애플의 장래를 염려하며 영향력 있는 두 명의 저명한 교수가 애플의 새 최고경영자(CEO) 팀 쿡에게 공개 조언을 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애플의 현재를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 현상유지는 혁신의 적이며 침체와 공멸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현상유지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를 줍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고전8:2). 자신이 서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까 조심하라(고전10:12).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조심하여 붙들라. 그렇지 않으면 “홀려 떠나려 갈까 염려하노라”(히2:1). 자전거를 배운 적이 있으시나? 넘어질 것 같아서 브레이크를 잡고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균형을 유지하며 페달을 계속 밟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현상유지는 없습니다. 멈추면 넘어집니다. 전진과 후퇴만 있을 뿐입니다. 현재의 신앙에 만족하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밀려 떠나려갑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말굽의 페달을 계속 밟고 기도의 노를 저으며 전진하는 길 외에 없습니다. 멈추면 우리는 얼마 후 침체에 깊이

빠져 사랑도 식고 기쁨도 없고 생명의 능력도 상실한 나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영혼 뿐 아니라 마음과 몸도 강건해질 것입니다. 한가한 저녁 시간에 말씀을 접한다면 이보다 더 의미 있게 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TV나 인터넷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지 말고,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나의 창조자 하나님, 나의 구속자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내생의 의미를 성경에서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그분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 내 삶에 의미와

기쁨과 변화의 능력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현재를 의심하십시오.” 나는 언젠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로 세상에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페달을 계속 밟으십시오(히12:1-2). 현 상태에 만족하면 곧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실패하셨나요? 포기하고 싶으시나요?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날’까지.

# 푸/ 른/ 초/ 장

## 이지용 목사

(뉴욕게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없어 보일 정도로 수척한 채로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는 살아온 긴 세월, 무려 147년이라는 긴 시간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연들과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머리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 노인은 다름 아닌 야곱입니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지난 세월을 반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란 말은 우리의 감정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을 맞는 사람의 마음은 여느 때와는 다릅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많은 사연을 안고 산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이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묘사한 인물도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믿음 속에는 성공을 추구하는 이기심이 너무 강했고, 도적, 투기, 두려움, 질투가 상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순간에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모든 육신의 찌꺼기는 녹아내리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동반한 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마감하는 시간이 되지만 동시에 이 시간은 우리가 믿음을 완성하는 순간이 되기도

입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온 맘 다해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가장 안전한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기업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아 자녀 손들을 축복했습니다. 자녀들이면 길을 갈 때, 결혼을 할 때, 전쟁터에 나갈 때, 자녀들의 머리

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말년에 성숙되어진 믿음은 그런 이기심, 자기 성취의 욕구를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믿음으로 성숙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들, 그러니까 손자들을 축복하는데 야곱의 눈이 어두운 까닭에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오렌 쪽에 앉히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왼쪽에 앉혀 아버지의 손을 얹어 놓습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이 기도를 할 때는 손을 어긋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오른쪽이 더 축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 알고 그러시나 보다 하며 아버지가 야곱의 손을 펴서 똑바로 해 놓는데 아버지가 이것을 거절합니다. 야곱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복을 더 받

듯대로 마음시키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뜻(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던 크던 가난하던 부하던 험통하던 어렵던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드린다면 우리는 가장 올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을 하고 부흥을 하고 크게 이루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상식과 순리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통해서 구별됩니다. 이 야곱의 믿음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의 향구에 도달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익숙해져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배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

금 요셉에게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고 말할 때의 야곱의 마음 또한 이삭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후원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지혜의 사람이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선택 앞에는 무기력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믿음입니다. 야곱은 말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부터 애굽 땅에서 효도를 받으며 호강을 누립니다. 그러나 야곱이 애굽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한시도 그는 가나안 땅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늘 그 땅을 그리워하며 소망을 그 나라에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라도 만일 이 믿음이 없었다면 야곱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견고하게 하고 살았던 것이 모든 믿음을 완성하는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완성 =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신이나 잘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벌써 9월입니다. 여러분, 2011년 도에 무엇을 얻으시길 원하십니까? 시작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끝내는 마무리도 아름다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임종의 순간조차도 아름다운 수 있습니다. (15면으로 계속)

## “임종을 앞둔 야곱의 믿음” 창세기 48장 1-22절

본문은 병들어 임종을 앞둔 아버지를 아들 요셉이 문병하러 온 장면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기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줄 것을 맹세하게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들었는데, 이는 야곱의 임종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징조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병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로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지만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명예와 부귀 보다는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복을 물려받는 것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소망하였기 때문에 그 복을 아들들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도 그

함니다. 그 때에, 임종을 앞둔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1. 자손들을 축복하는 믿음입니다. 요셉의 현 위치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권력은 풀의 꽃과 같이 언젠가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조상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그의 후손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창48:3-4). 하나님이 보증해 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

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서 내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확고한 것이고 이로 인해 그들의 자녀들은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30%를 차지하고,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이유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모로부터 받은 축복이 그들에게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여러분! 기도로, 말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2.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어도 그의 삶은 지독한 이기주의자의 삶이었습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기와 도적질, 거짓말

는 것입니다(이것은 훗날 신약 백성이 받을 축복의 예표를 담고 있는데 율법을 따르는 구약의 백성들보다 예수님을 믿는 신약의 성도들이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성도여러분! 인간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 6:38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리고 겔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맞추어 행동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형 에서인 것처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다. 나중에 에서가 돌아온 후에 이삭은 자신이 속았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였으니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은 무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속임수가 되었지만 결국 이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음을 받아들입니다(27:37). 오늘 야곱도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지

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맞추어 행동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형 에서인 것처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다. 나중에 에서가 돌아온 후에 이삭은 자신이 속았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였으니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은 무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속임수가 되었지만 결국 이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음을 받아들입니다(27:37). 오늘 야곱도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지

## EM Pastor Search

The New Journey Ministry, English Ministry of the First Korean Baptist Church of Raleigh, has an opening for pastor who will lead the existing College/Young Adults and Adults ministries and who will provide overall leadership to all other existing English-based ministries of the church including the Children and Youth ministries.

**Qualification**

- Calling for English speaking 2nd generation ministry
- Passion for contemporary worship in American style
- Ability to speak Korean
- M. Div or an equivalent degree from an accredited seminary
- Experience preferred in English ministry leadership (approx. 5 years)

**Submit To**  
Dr. Don Choi, Senior Pastor  
First Korean Baptist Church of Raleigh 8905 Ray Road, Raleigh, NC 27613

**For Further Inquiry**  
Contact Deacon Paul Ro, Chair of the EM Pastor Search Committee  
Tel. 919.870.9070 / E-mail: piro526@gmail.com

**Application Requirement**

- Resume including family status and photo
- Statement of faith, calling, and vision for English Ministry

**Application Deadline**  
November 31, 2011

영어권 사역자  
청빙

**지원 자격**

- 2세 영어 사역 소망
- 경력과 신앙 여파에 대한 열정
- 한국어 사용 가능
- 정규 신학대학 졸업
- 5년 영어 목회 경험 선호

**제출 서류**

- 이력서와 가족사진
- 목회 소견서

**접수 마감일**  
2011년 11월 31일

**보내실 곳**  
Dr. Don Choi, Senior Pastor  
First Korean Baptist Church of Raleigh 8905 Ray Road, Raleigh, NC 27613

**문의**  
Contact Deacon Paul Ro, Chair of the EM Pastor Search Committee  
Tel. 919.870.9070 / E-mail: piro526@gmail.com

라리제이일함인침례교회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            |       |      |       |
|----------|------------|-------|------|-------|
| ★ 1년 구독료 | 미국         | \$100 | 유럽   | \$190 |
|          | 캐나다        | \$110 | 남미   | \$190 |
|          | 한국 및 동남아시아 | \$190 | 아프리카 | \$190 |

|   |   |           |   |  |
|---|---|-----------|---|--|
| 신청 유형   |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br><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낼 |           |   |  |
|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 한글: _____   | 영문: _____ | <input type="checkbox"/> 목사<br><input type="checkbox"/> 평신도 |  |
| 배달 주소   | _____   |           |   |  |
| 전화/Fax  | ( ) ( )   |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입력하십시오. |   |           |   |  |
| 받는 분 이름   | 한글  | 영문        |   |  |
| 전화번호/Fax  | ( ) ( )   |           |   |  |
| 배달 주소   | _____   |           |   |  |
| 교회/기관명  | _____   |           |   |  |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의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양생환이 9.11사건 이전과 비교해서 오늘날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조사한 것이다.

9.11의 참사가 일어난 직후에 뉴욕인들의 수백만 명이 교회로 달려갔다. 엄청난 참사를 당했지만 뉴욕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은 9.11의 참혹한 참사를 통한 뉴욕인들의 신앙의 회복을 기대했다. 그런데 잠깐 교회의 출석율의 증가를 보이는 가 했더니 6개월 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의 이슬비 같은 은혜가 뉴욕에 임했다. 바나리사치의 조사에 의하면 뉴욕인들의 교회 출석율은 1999년도와 2003년도에 최저치로 31%이었지만 현재 2011년에는 46%로 증가했다. 정말로 고무적인 현상이다. 뉴욕인들의 성경읽기는 10년 전 29%에서 35%로 증가했고, 주중에 기도하고 성경읽기는 10년 전 17%에서 24%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교회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10년 전 42%에서 34%로 감소했다. 이런 통계들은 부분적이지만 뉴욕의 영성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뉴욕의 영적활동의 증가는 뉴욕의 특징상 보수적이거나 복음주의에 속한 성도들의 증가가 아니라라는 점이다. 뉴욕시에 사는 복음주의에 속한 성도들은 지난 14년 동안 점점 감소해왔다. 복음주의자들은 1990년대의 4%에서 지금은 1% 정도로 감소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9.11이후에 뉴욕인들의 믿음과 종교의 긴급성에 대한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고, 또한 장기적으로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거듭난 성도와 종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정은 9.11이후에 증가되었다. 교회의 출석율의 증가는 2004년 이후에 증가하였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려는 것은 뉴욕의 언론계와 같은 대도시에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일어난다는 것이다.

바나리사치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테러 분자들의 끊임없는 위협,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 웰스퍼트 금융가의 위기, 약해지는 경제 등이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레

지금은 재난의 시대이다. 특별히 지난 8월 마지막 주간은 재난의 주간이었다. 한 주간에 뉴욕과 동부지역에 3개의 폭풍이 연달아 몰아 닥쳤다.

첫째로, 뉴욕에 쏟아진 해일의 폭풍이 있었다. 하늘의 창이 열리고 대낮에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 내렸다. 난생 처음 보는 큰 우박이었다. 주먹만한 우박은 수천대의 자동차와 수많은 집들의 지붕과 창문을 파괴했다. 둘째로, 강도 5.9의 지진의 폭풍이 동부의 버지니아를 강타했다. 그 여진이 뉴욕의 맨해튼에도, 보스턴에도, 멀리는 캐나다에서도 진동을 느꼈다고 한다. 동부는 지진이 없는 지역인데 이제 그 안전대도 깨어졌다.

셋째로, 허리케인 아이린이 미국

해매고 있는데 허리케인으로 인하여 올 엄청난 후유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허리케인은 열대성 폭풍으로 속도와 강도가 낮아지고, 또한 기적적으로 뉴욕을 살짝 비껴서 지나갔다. 뉴욕에 오려 머무르지 않고 재빨리 지나갔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었다. 물론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그 여파는 엄청나서 수많은 지역에 정전과 폭풍의 잔해들을 남겼다. 이런 천재를 보험회사에서는 '하나님의 행동(Act of God)'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오키신 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재난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보험회사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 재난과 믿음의 역학관계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김혜천 목사



의 동부지역의 11개주와 캐나다를 강타했다. 반경이 500마일이 넘는 미국을 덮는 거대한 폭풍이었다. 허리케인 아이린은 카테고리2로 시작하여 카테고리1의 강력한 속도로 대도시들이 집중된 동부지역을 강타할 것이 예보되었다. 예상경로에 있던 대도시들은 초긴장 상태에서 기다렸다. 특별히 뉴욕시를 통과하여 지나간다는 예보로 인하여 만반의 대비를 했다.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사상 처음으로 지하철과 교외선 등의 모든 대중 교통수단까지 미리 정지시키고, 침수 예상지역의 주민들은 모두 대피시켰다. 허리케인 아이린은 동부지역에는 허리케인이 잘 오지 않는다는 전례를 깨어버린, 200년 동안에 동부에 불어 닥친 6번째의 허리케인이었다. 지난 주간은 마치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내린 열재앙처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재앙들처럼, 잇달아 계속해서 내리는 재난의 릴레이를 보는 것 같았다. 아니 우리가 기억컨대 2011년은 연초부터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난 수많은 재앙의 연속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기 속에

신앙 때문은 결코 아니다. 천재지변을 act of God이라고 부르면서 보험금 지불이 달라진다. 사람들은 재난을 하나님의 역사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믿거나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재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혹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일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이다. 자연재해도 무섭지만 인재 또한 가공할만한 상처를 남긴다. 벌써 9.11의 10주년이 되었다.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은 뉴욕의 상징이었던 월드트레이드 센터와 펜타곤을 비행기 테러로 공격했다. 9.11은 현대사의 최악의 범죄이었다. 테러리스트의 9.11공격 이후의 세계는 변했고 사람들은 변했다. 모든 것이 다 변했다. 그런데 과연 사람들은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무엇을 배우는가? 과연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 재해와 같은 천재나 혹은 테러와 같은 인재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지난 8월 바나리사치의 데이빗 킨맨은 매우 의미있는 보고서 내 놓았다. '9.11이후의 신앙'이라는 조사는 뉴욕인들의 신

해준다. 혹자는 이것은 미미한 변화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미국 전체인구의 교회생활은 교회 출석율은 줄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늘었고, 성경읽기는 10년 전의 수준을 유지한 것에 비하면 참으로 감사할 일이다. 하지만 킨맨은 출석율의 증가가 9.11과 직접 관계있는 것으로는 보지는 않았다. 교회 출석율은 2001년 9.11 이후에 잠깐 늘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후에 2004년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인이 무엇인지 간에 결과를 한마디로 말하면 뉴욕의 신앙의 변화는 10년 전보다 더 영적인 활동이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다. 금년의 자료에 의하면 종교적인 믿음이 인생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 뉴욕인들은 61%이다. 미국 전체 평균 71%에 비하면 낮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세속적인 뉴욕인들의 성향을 생각하면 그나마 높은 편이다. 믿보적인 뉴욕의 언론계에서도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1990년대의 20%에서 32%로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2001년 이후로

이더에 잡히지 않는 이유들도 있겠다. 뉴욕으로 이주해 오는 이민자들의 증가, 결혼과 건강과 같은 개인적인 이유들, 도시 안에 있는 신앙공동체들의 영향 등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주류교단의 교회들은 약화되지만 각 인종들의 이민교회는 그래도 부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라고 믿는다. 비록 재난을 당했지만 상처 입은 자들을 붙잡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는다. 재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겪은 수많은 재난과 고통으로 벌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출애굽기의 애굽의 바위가 계속되는 열 가지 재앙에도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처럼 재난 속에서 마음을 강박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재난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은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15면으로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저는 몇 달 전에 성지 이스라엘을 방문하였습니다. 성지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어떤 곳이며 빼앗겼다가 언제 회복되었으며 현재 지정학적으로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성에서 예나

A: 성지 예루살렘은 전 세계의 중심부이며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이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며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은 중심이므로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부라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흔들었던 대제국들은 모두 문명의 발상지인 중동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그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차지한 나라는 예외 없이 전 세계를 지배하였습니다. 세계사는 한 마디로 예루살렘 정탈전인 셈입니다.

BC 1300년 이스라엘은 현재 이스라엘의 영토인 가나안을 정복하였습니다. 그 후 400년 만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였으며 그 후계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로 변했습니다. BC 587년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

## 세계의 중심부...1967년 아랍연합군과 전쟁서 생취

을 파괴하였으며 파사의 고레스왕은 유대민족이 예루살렘을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도록 정치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주었습니다. 피르시아를 계승한 그리스제국이 유대인 강제 동화정책을 시행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BC 517년).

그리스에 이어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는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불태웠으며 예루살렘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였습니다(AD 70년). 그 후로 유대민족 국가는 지도상에서 없어졌으며 로마는 이스라엘영토와 예루살렘을 각각 팔레스티나와 엘리 아 카피톨리나로 명명하였습니다. 그 이후 예루살렘은 연속해서 비잔틴 제국, 아랍 이슬람제국, 로마가톨릭의 십자군, 맘루크 제국을 거쳐 1516년 이래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917년 약 400년간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오스만 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자 그 점령지였던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은 대영제국의 위임통치령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948년 유엔의 결의 하에 팔레스타인에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예루살렘은 유엔이 관할하는 국제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1967년 아랍연합군과 이스라엘사이에서 발생한 6일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가지 예루살렘은 2000년 만에 유대인에게 회복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현재 매년 300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관광명소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의 종교의 성지로 불리웁니다. 앞으로도 세계 종말에 예루살렘을 정탈하기 위하여 전쟁은 계속되리라 내다봅니다.

지난10년동안40여건의고소의갈등과불화속에서도 교회를치유하고갈등의부흥을일으키며 300억성전건축의놀라운역사를이룬 치유의말씀들!!!

김의식목사의상담치유의말씀모음제3집 치유의메시지!! 교회의갈등과분열의이면속에잠겨있는 상한감정의뿌리를치유하기위한치유목회설교!!

## 상담 치유의 말씀 모음 제3집

# 상한교회의 치유



저자 김의식 목사

- 한양대학교(공학사)
- 장로회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교역학석사)
- 장로회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신학석사)
- 프린스턴신학대학원(신학석사)
- 시카고신학대학원(철학석사)
- 진 시카고한인연합장로교회담임목사
- 호남신학대학교교수
- 장로회신학대학교강연교수
- 원) 학곡동교회담임목사
- 크리스천역량개발연구원교수
- 서울장로회신학대학원강연교수

|  |  |  |  |  |  |  |
|--|--|--|--|--|--|--|
|  |  |  |  |  |  |  |
|--|--|--|--|--|--|--|





###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파키스탄의 코히스타니(KOHISTANI)



코히스타니 부족들은 파키스탄 북부의 스와트강과 판즈코라 강의 상류 강변에 살고 있다. 또 그들은 인더스강과 지류의 동부 연안에서도 볼 수 있으며, 이 강은 아프가니스탄 국경 근처의 코히스탄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 파키스탄 지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와 가장 깊은 계곡, 가장 긴 빙벽이 있다.

영국인들은 1885년경에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됐지만 1947년에 파키스탄이 독립하면서 이 나라를 떠났다. 하지만 푸쉬툰족(파탄족)이 그들의 땅을 사들이거나 폭력으로 축출함으로써 오랫동안 코히스타니족을 지배해왔다. 오늘날 코히스탄 지역에 살고 있는 코히스타니족의 하위 부족들이기도 한 몇 개의 다른 종족들이 있다. 그들은 투르발리족, 바테리족, 갈로족, 라즈코티족, 또 코히스타니족 그 자신도 포함된다. 이 부족들은 몇 개의 특징적인 다른 언어를 말하지만 그들이 주로 의사소통하는 언어는 파쉬투어로서 이는 지배적

인 푸쉬툰족의 언어이다. 코히스타니족은 강건하고 튼튼한 체격을 가지고 있으며 용감하지만 조용한 사람들이다.

**삶의 모습**  
코히스타니 부족들은 인더스강 지류가 형성한 협곡에 거주하는데 인더스강이 바위가 많은 가파른 협곡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관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쓸모없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주로 농부들이거나 목양업자들로 경사진 밭에다 곡물을 심으며 밭을 갈기 위해 황소가 사용된다. 강우량은 매우 적고 따라서 작물은 "쿨"(kull)이라고 하는 수로를 통해 관개를 하며 이것은 지속적이고 숙련된 관리를 필요로 한다.

이 지역에서 그들은 보리와 밀, 수수, 기장, 쌀을 경작하고 감자와 다른 여러 채소를 재배한다. 단지 1년작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썩소와 염소 떼를 몰고 이동방목(TRANSUMANT)을 한다. 여름에는 소, 염소, 양 떼를 몰고 고산 목초지로 이동한다.

주변의 산악지형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이 코히스타니족을 격리시켰다. 대부분의 정착지들은 소규모 독립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해발고도가 1,000-4,500미터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대개 높은 지역의 너트 군데에 집을 가지고 있으며 겨울에만 강연리의 단란한 마을에서 함께 산다.

코히스타니의 마을들은 몇 개의 계열로 이루어져 있다. 농부들 외에도 대장장이들과 목수들이 있으며 이들은 파쉬투어를 쓰는 2개 언어 사용자들이다. 또 소작농들과 농업 임노동자들도 많이 있다. 코히스타니족은 일반적으로 축내촌을 한다.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로 남성을 통해 이어진다. 다른 많은 이슬람 종족들의 관습과는 달리 여자들은 격리되지는 않는 데 이것은 그들이 농사일을 돕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더스강 계곡을 따라 카라코람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코히스타니 사회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주고 있다. 파키스탄 사회의 주류권에 보다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대규모 도로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것은 남부의 푸쉬툰인들이 유입되도록 고무하고 있기도 하다. 코히스타니족은 푸쉬툰인들에 대한 분개심이 증가하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지방정부의 관료직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인더스의 코히스타니족이 자신들의 행정영역을 가질 수 있도록 코히스탄 주를 만들었다.

**신앙**  
수백년전 북부 파키스탄 지역은 주로 불교권이었다. 이후 힌두교가 들어왔고 서기 1000년경에 이슬람이 들어왔다. 당시 코히스타니인들은 다신교적인 아리아인의 신앙에서 수니파 정통의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이슬람 이전의 전통 신앙의 흔적들이 아직도 일부 지역에 남아 있다. 일부 부족들은 무속신앙(샤머니즘)을 지키고 있으며 신들과 약마, 정령, 조상신과 같은 보이지 않은 세계가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주술사에 의지하여 마법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신령과 점신하며 의식들을 주재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은 그 이름에서 의미하는 바대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기독교에 문을 닫고 있으며 선교사들이 거주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 현재, 코히스타니 부족들 중 그 어디에도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으며, 라즈코티족, 갈로족, 투르발리족 가운데에는 알려진 성도도 없다. 코히스타니인들의 마음이 진리를 향해 돌아서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도와 보다 많은 복음의 노력들이 행해져야 한다.

##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 9.11테러 후 10년, 뉴욕시민들 신앙증가

9.11 테러 이후 10년간 이뤄진 뉴욕 시민들의 신앙 변화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신앙은 테러 이전보다 현재 더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건으로 기록되는 9.11테러 10주년을 맞아 바나 그룹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매년 3,400여 명의 뉴욕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온 내용을 종합, 분석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오래 큰 위기를 겪은 지역 주민들의 신앙심이 높아지는 현상이 9.11 테러 직후 뉴욕에서도 일어났다. 당시 뉴욕 전역의 교회들과 다른 종교 시설들로 극심한 괴로움과 슬픔을 달래고자 수백만의 인파가 몰리는 일들이 보도되곤 했다.

바나 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아 몇 달 만에 테러 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으며, 2003년까지 이같은 경향이 지속됐다. 그러나 변화는 2004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신앙의 영향이 뉴욕 시민들 가운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테러 전과 2003년까지 31%에 불과했던 교회 출석률은 200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1년 현재까지 46%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성경을 읽는 이들은 29%에서 35%로, 기도를 하는 이들은 17%에서 24%가 됐다. 또한 스스로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이들도 20%에서 32%로 늘었으며, 반대로 교회와 접촉이 없는 이들(the unchurched)의 비율은 43%에서 34%로 줄었다.

설문 조사를 이끈 데이빗 키너맨 대표는 한편, 이같은 변화는 9.11테러뿐 아니라 그 후에 이어졌던 웰스트리트 위기와, 경제 악화 등 미국의 여러 위기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비록 9.11 테러 직후 높아졌던 신앙에 대한 관심이 2003년까지 실질적인 신앙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는 위기 가운데 갖게 된 신앙심이 굳건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텍사스에 '자동차 극장형' 교회 등장**

텍사스 주에 자동차 극장형 교회가 세워져 화제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예배는 시작된다. 예배 장소가 차 안이라는 것만 빼면, 찬양, 기도, 설교 모두 기존 교회 형식 그대로다. 과격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이 같은 시도는 마스터장로교회 담임 데이빗 레이 목사의 아이디어이다.

레이 목사는 CNN 협력채 WFAA과의 인터뷰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해 자동차 극장형 예배를 열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같은 나의 시도를 허락하실 것"이라며 "예수님의 사역도 대부분 야외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대부분 문제는 안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텍사스 주 루카스 지역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을 빌려 드리는 이 교회는, 장로교단의 데이빗 레이 목사가 3번째로 세운 야외 교회로 "하늘 아래 성전(Sanctuary under the Sky)"이라고 명명했다. 오전 9시에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린 후 오전 10시 30분에는 예배당 내에서 정식 예배를 드린다. 최근 주일 예배를 드린 한 교인은 "대형교회보다 혼자 예배드리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히며 자동차 극장식 교회를 지지했다.

**"기독교인들, 9.11 영웅들처럼 억압받는 이들 구해야"**

9.11테러 10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그 당시 자

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시민들의 구조에 나선 9.11 영웅들의 정신도 또다시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이같은 정신을 본받아 기독교인들도 오늘날 종교적 억압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대표가 촉구했다.

미국 오픈도어즈 대표 칼 모렐라 박사는 최근 크리스천포스트(CP)에, "우리가 편안하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들이 있다. 그러나 3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는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했다"며 "9.11 이후 미국이 겪은 고통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 때문에 받고 있는 고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1억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박해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박해의 75%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박해 중에서 테러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을 다치게 하고 숨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모렐라 박사는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이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고자 행동해야 한다"며 "9.11 테러 직후 수많은 소방관, 경찰관, 긴급구조원들이 시민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뛰어다녔던 것처럼 우리도 '몸으로 부딪쳐'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박해 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기도와 후원이 있다. 모렐라 박사는 이 두 가지 일에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기독교인들이 세계적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우리가 형제와 자매의 고통을 간과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몸 안의 고통을 간과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미국 내 이슬람교도들, 현 상황에 만족감 높아**

9.11사태 이후 반이슬람 감정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이슬람교도들은 현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사회문제 연구단체 퓨 포럼(the Pew Forum)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내 이슬람교도

들은 오히려 다른 미국인들에 비해 미국의 현 상황에 대해 만족감을 보였으며, 미국의 관습과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싶다고 답한 이들도 절반 이상이었다. 응답자 중 3분의2는 미국이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보다 더 좋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반 가까운 응답자들은 9.11사태 이후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4분의1은 수상한 존재로 취급되거나, 모욕적인 이름으로 불리거나, 공항의 보안 검사에 의도적으로 추출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아프간과 소말리아, 신생아 사망률 최고**

세계보건기구(WHO)와 세이브더칠드런(회장 김노보)은 지난달 30일 신생아 사망 예상치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의학 저널 플로스 메디슨(PLOS Medicine)지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신생아(생후 4주) 사망률은 1990년 460만 명에서 2009년 330만 명으로 28%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각각 산모사망률과 아동사망률(생후 1개월 이상-5세 미만) 감소 비율인 34%와 37%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신생아 사망률을 포함할 경우 아동 사망률은 41%로 크게 늘었다. 아동 건강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사망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신생아 사망률은 1990년 1,000명 당 4명에서 2009년 2.2명으로 45% 감소해 프랑스(France), 에스토니아(Estonia), 몰타(Malta) 등과 함께 신생아 사망률 순위 공동 16위에 올랐다. 이탈리아 반도에 자리잡은 산마리노(San Marino)의 신생아 사망률이 1,000명 당 0.6명으로 가장 낮았고 그 뒤를 0.8명인 룩셈부르크(Luxembourg)와 1.1명인 일본이 이었다.

신생아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2009년 1,000명당 53명의 신생아가 사망한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으로 조사됐다. 최근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긴급구호가 선포된 소말리아(Somalia) 역시 53명으로 높은 신생아 사망률을 보였다. 이밖에, 콩고 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Congo)이 51명, 말리(Mali)가 50명, 시에라리온(Sierra Leone)이 49명으로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하위권을 차지했다.

365Revival.com
365Revival.com

귀하고 귀한 교회예산- 단 1불이라도 아껴드립니다

사역의 압축, 절감- 단 1%이내로 줄여드립니다

## 가격과 품질의 양날개로 여러분의 미디어 사역을 떠받쳐 드립니다

길보라 세성교회, 나성 복음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 남가주 침례교회, 노스웨스트 장로교회, 달라스 한인 장로교회, 대흥장로교회, 동부 사랑의교회, 동진교회, 드림교회, 로스 장로교회, 만나교회, 몬트레이 비전한국교회, 미주 한인교회, 배럴 한인교회, 배럴 장로교회, 브리지교회, 샌디에고 아담스교회, 성원한국교회, 세계성도교회, 세계로교회, 시애틀 령교회, 시온연합장로교회, 아버디타운교회, 아담스교회, 알버타 원교회, 에브리데이교회, 예살교회, 은혜장로교회, 은혜한국교회, 주님이 함께하는교회, 코너스톤 교회, 도원스 제임장로교회, 도원스 조은교회, 텍사스 한인장로교회, 풀러만교회, 하노우 커뮤니티 교회, 하버 청산교회, BIOLA UNIVERSITY, CROWN FINANCIAL MINISTRY, CONCORD UNIVERSITY, FAITHANDWORKLIFE.ORG CALVARY CHURCH, SADDLE BACK CHURCH, KINGDOM BUSINESS ADVISOR GROUP, REVIVALWORK.COM, R&W, BUSINESS AS MISSION, FmC, ITMC, PGM, ENJOY&TV, HGM, SILKWAVE MISSION, ThisMEonTV.com, KBS, MBC 등 항상 성원해주신 많은 교회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365Revival.com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변하지 않고 최저가격, 최고품질로 여러분의 미디어 사역에 든든한 날개가 되겠습니다.

**한 영혼도 소홀히 할 수 없기에... 불량을 0%를 지향하는 정품만을 공급합니다**

불량을 1%미만의 Philips로부터 Pro Disc, Ritek, Verbatim, Falcon, 불량을 0.05%미만의 Taiyo Uden, Optical Quantum까지 세계 최고 브랜드의 정품 CD-R, DVD-R, DVD-RW를 중간대신 없는 **출세일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Philips 공CD-R: 13.60c부터)

- Blank, Inkjet Printable, Pre-printed타입 등 모든 종류의 미디어 공급
- 24시간 **무휴대급**: 남가주 전역(8450이상 주문시)
- 미 전역 **신속배송**: UPS, USPS Ground Service(다주 주문시 면제)

**Special CD/DVD 재차 서비스**

특별집회/부흥회/행사/리츠 **실교** 등을 위한반 보나 주시엔 편집, 제작, 복제, 표지 디자인에서 목재 정까지 **필리웃** 수준의 판매용 품질로 제공드립니다.

**중소형교회를 위한 획기적인 솔루션!**

혼자서 CD/DVD 복제는 물론 리플 인쇄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Epson 디스크 프로듀서가 실교, 전양 CD는 물론, 특별DVD까지 수중에 존재하지 않는 교회의 모든 디스크복제와 라벨인쇄를 책임집니다. **당기 \$2,695(회원 특별할인가: 전화 문의 요망)**

**365Revival.com**의 Special Offer를 방문하셔서 매일 새롭게 제공되는 푸짐한 할인혜택과 특별선물을 확인하세요.

**예산절감 & 인력절감, 일당직 판능 해결사- EPSON 디스크 프로듀서**

- All-in-One: 자동CD/DVD Duplicator & Label Printer
- 복사자가 부족한 교회에 인성맞춤
- 자유로운 수량조절로 5-400장의 디스크 복제에 적격
- 빠른 속도: Label Print 시 60-70장/분, Label Print & CD Dup 시 40-45장/분
- 효율적 개발 링크 활용가능으로 **낮은 유지비** 및 운영비
- **원터치로 100장까지 무인 자동 CD/DVD복제 및 라벨인쇄**
- **간단한 작동법과 다양한 템플릿**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

**미 전역을 커버하는 Epson의 A/S망**

미 전역에 거미줄처럼 펼쳐있는 Epson의 Nationwide A/S Network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online진단/상담 및 무료 부품수리/교환 서비스
- 1 year warranty: Extended care plan available

Epson America, Inc.  
3840 Kilroy Airport Way Long Beach, CA 90806  
discproducer.epson.com

**최상품의 모든 Media Supply 완벽 구비!**

Labels, Sleeves(Paper, Color, Clear Plastic), CD/DVD Cases, Mailers, Envelopes, Inserts, Hubs

**Revival 멤버십 실시!** 모든 미디어 및 서클러 구입시 3% 할인

**빠르고 저렴한 CD/DVD Duplicators**

클래식 중 가장 빠른속도, 7년 내의 애프터 및 고객지원, I.V Enterprise 지원, -엔터프라이즈용인, -확실한 품질보증, -신속한 A/S 및 보상의 조치

**실교CD/DVD/Duplicator & Media supplies**

**365Revival.com**

**FAITH & WORKS Media Corporation**  
OC/SD/BAY 1221 E. Dyer Road Suite 290, Santa Ana, CA 92705  
LA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INLAND 20635 Valley Blvd. Bldg. A. Walnut, CA 91789  
☎ 24시간 직통: 213-985-3088 / 949-742-2600



# 종교다원주의 연구 (4)



조진모 목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Ph.D)

## 종교다원주의 등장 의 역사적 배경 (3)

다른 것들과의 공존

타문화를 처음 접하면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것이 음식이든 음식이든, 내 취향과는 다른 것과 친숙해지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 곳에서 태어나서 좁은 성장하여 바깥 세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에 경험하지 않은 것을 접하면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것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자신과 다른 것을 거부하지 않고 공존하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안방에서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뿐 아니라, 전혀 생소한 문화를 자주 접하면서 점점 익숙해져가고 있다. 낯이 갈수록 온 세계에 흠뻑 살고 있지만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까운 이웃과 같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교통수단의 발달로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얻고 있다.

이민자들이 삶을 통해 다른 것과 의 공존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이

만저는 자신의 문화, 신앙, 그리고 언어를 지니고 새로운 터전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어 자신들의 전통을 지켜갈 뿐 아니라, 타민족에게도 자신들의 것을 전하는데 힘을 쏟는다. 그 결과 아주 자연스럽게 타문화를 접하게 되고 이에 익숙하게 된다. 외국인들은 뉴욕

관계가 없는 자들을 특정 종교인들이라는 이유로 매도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공존의 방법은 이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위험하다. 자신이 기독교를 유일한 진리의 종교로 믿는 것은 가능하나, 이런 이유 때문에 타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꼬집어 지

대한 강한 거부와 도전이었다. 계몽주의가 지배하던 모던의 사고방식은 이성을 기초로 하는 '인간 중심'의 자율적인 방법이었다. 사람들은 삶을 풍요롭게 해 주며 행복을 준다는 약속에 대한 기대를 놓지하려 하지 않았다. 산업화, 사회적 발전, 그리고 과학기술의 진보를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이성을 중심으로 근대성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몇 가지 계기를 맞게 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은 발달된 과학 기술로 인간 학살을 자행하는 비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하였다. 산업화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환경을 망가뜨리고 노동자들을 착취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것도 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모던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크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 하나는 철학자들의 공격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먼저 포스트모던 철학자들을 살펴보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는 자신의 사명이 모던 사상의 억압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대변하여 비판하는 것이라고 본 대

리차드 로티(Richard Rorty, 1931-2007)는 철학이 사회와 문화의 토대를 만든다는 전통적인 개념을 부정하고, 예술과 문화와 같은 수준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진리의 가치에 대하여 논하면서 실용주의적 관점을 강조하였는데, 참 진리는 당면한 문제를 얼마나 잘 대처하게 해주는지에 의해 판단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포스트모던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은 거대한 지식의 체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용적인 면에 더욱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편 모던에 대한 공격은 문화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포스트모던 문화의 특징은 단일의 권위와 전통의 가치를 부정하고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던 예술가들은 공통적으로 청중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조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나란히 병치하는 스타일을 고집한 결과,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기

나들며 일반화된 표준을 거부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포스트모던 문화는 대중문화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포스트모던의 사상이 텔레비전, 인터넷, 영화, 음악, 미술, 연극, 문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과 다른 것을 수용하는 강력한 시대정신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

## 포스트모던과 종교다원주의

다원주의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포스트모던이라는 토양에서 자라났다. 모던이 추구한 철학과 과학 중심의 사고가 도전을 받으면서 기초를 잃게 된 결과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발생한 것이다. 다원주의는 문화의 토대를 이루는 전체적 구조가 되는 사상적 체계를 부정하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정신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종교다원주의도 마찬가지다. 종교다원주의는 포스트모던이란 막강한 세력의 후원을 받으며 시작되었다. 객관적 진리를 부정하는 그들은 계시종교를 특징으로 하는 기독교를 냉소적으로 대한다.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다원성을 수용하기 때문이다. 포스트모던이 진리로 간주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인 것이기에, 기독교를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전락시켰다.

모던의 사상 체계를 억압이라는 구조로 이해하는 포스트모던 신학자들은 전통적 신학을 거부하고 정치신학, 여성신학, 해방신학 등 급진적인 신학을 받아들였다. 약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대변인의 입장에서 신학을 전개하던 정통신학과 대립하는 구도에 놓여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선택한 것이다. 종교다원주의가 지닌 문제의 역사적 뿌리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타종교와의 대화 또는 일치는 다른 것들과의 공존을 강력하게 추구하는 포스트모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 지식 체계에 관심 없는 포스트모던 문화 영향 받아 상대적 진리 주장, 기독교를 종교중 하나로 전락시켜

맨해튼 한복판에 있는 한식당에서 갈비를 맛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이태원에서 이슬람식 케밥을 맛볼 수 있는 동시에, 그곳에서 이슬람 사원에 무슬림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서로 다른 것이 공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자기와 다른 것이 지닌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9.11 사태 직후 미국에 사는 많은 이슬람들이 보복이 두려워 머리를 짧게 깎고 수업을 면도한 적이 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지만, 직접적인

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이미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의 진리를 지니고 있다는 사상이 함축적으로 강요되는 것은 이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다.

### 포스트모던시대

포스트모던은 전혀 맞지 않는 다른 것들과의 공존을 요구할 뿐 아니라, 이것이 가능한 일임으로 반드시 실천할 것을 설득하는 주범이다. 1960년대 이후 포스트모던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근세 극단에

표적인 포스트모던 철학자이다. 무엇보다 그는 지식의 객관성을 비판하였다.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약자와 소수를 지배하는 권력이 만들어 사용하는 질서 체계일 뿐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2004)는 서양 문화 내부의 체계적 균열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체를 주장하였다. 그가 근대문화를 주제와 객체의 대립구조로 이해하였는데, 이성과 감정, 과학과 비과학, 남자와 여자, 사실과 허구 등의 구조에는 반드시 억압적인 위계질서가 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에 이르렀다. 모던 건축은 다른 건물들과의 절대적인 일치를 주장하지만 포스트모던 건축은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특정한 상징을 나타내는 자유스러운 건축물을 고집한다.

모던 예술은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자기비판을 수용하지만 포스트모던 예술은 상호 충돌하는 이미지를 통하여 혼합성을 두드러지게 한다. 모던 연극은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지만 포스트모던 연극은 현재 상황에서의 의미를 찾으려한다. 모던 소설은 글쓰기의 양식을 중요시 여기지만 포스트모던 소설은 현실과 허구를 넘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 교회안내

|  |   |  |   |   |   |  |
|--|---|--|---|---|---|--|
| <b>그레이크이브교회</b><br>담임목사 : 송규식<br>주일 10:00, 11:00<br>1340 N. Cardenas St., Anaheim, CA 92801        | <b>나성순복음교회</b><br>담임목사 : 권유철<br>주일 10:00, 11:00, 12:00<br>1750 N. Edgemoor St., L.A., CA 90027      | <b>나성열린문교회</b><br>담임목사 : 박현성<br>주일 10:00, 11:00, 12:00<br>1525 Wilshire Blvd., L.A., CA 90027    | <b>나성제일교회</b><br>담임목사 : 김종삼<br>주일 10:00, 11:00, 12:00<br>213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 <b>나성서부교회</b><br>담임목사 : 이정현<br>주일 10:00, 11:00, 12:00<br>1218 E. Farlow Ave., L.A., 90019         | <b>남가주든든한교회</b><br>담임목사 : 김원진<br>주일 10:00, 11:00, 12:00<br>18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 <b>남가주리디아교회</b><br>담임목사 : 김요셉<br>주일 10:00, 11:00, 12:00<br>1822 E. Western Ave., L.A., CA 90018    |
| <b>남가주사랑의교회</b><br>주일 10:00, 11:00, 12:00<br>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 <b>다우니제일교회</b><br>담임목사 : 이문영<br>주일 10:00, 11:00, 12:00<br>7848 Quail Dr., Downey, CA 92624          | <b>대흥장로교회</b><br>담임목사 : 권영국<br>주일 10:00, 11:00, 12:00<br>1521 E.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b>디아스포라선교회</b><br>담임목사 : 권영자 목사<br>주일 10:00, 11:00, 12:00<br>213 Gabriel Drive, Maricopa, AZ, CA 85137 | <b>드림교회</b><br>담임목사 : 이성현<br>주일 10:00, 11:00, 12:00<br>1303 E. Colorado St., Fontana, CA 91706    | <b>만남의교회</b><br>담임목사 : 박성호<br>주일 10:00, 11:00, 12:00<br>18101 Leona St., Northridge, CA 91325         | <b>미주양곡교회</b><br>담임목사 : 지용덕<br>주일 10:00, 11:00, 12:00<br>518 E. Western Ave., L.A., CA 90028       |
| <b>미주 평안교회</b><br>담임목사 : 송정명<br>주일 10:00, 11:00, 12:00<br>170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04 | <b>방주선교회</b><br>담임목사 : 박동서<br>주일 10:00, 11:00, 12:00<br>5724 Marston Ave., Covington, CA 95928      | <b>베델한인교회</b><br>담임목사 : 손인석<br>주일 10:00, 11:00, 12:00<br>18700 Marston Ave., Alhambra, CA 91802  | <b>복음장로교회</b><br>담임목사 : 김장영<br>주일 10:00, 11:00, 12:00<br>1701 N. La Habra St., La Habra, CA 90831       | <b>브리지교회</b><br>담임목사 : 정세경<br>주일 10:00, 11:00, 12:00<br>1067 E. Redondo St., Covina, CA 91724     | <b>삼성장로교회</b><br>담임목사 : 신원규<br>주일 10:00, 11:00, 12:00<br>807 S. Lido St., La Habra, CA 90801          | <b>세계비전 교회</b><br>담임목사 : 김계민<br>주일 10:00, 11:00, 12:00<br>18216 Alhambra St., Northridge, CA 91325 |
| <b>세계소망교회</b><br>담임목사 : 오세훈<br>주일 10:00, 11:00, 12:00<br>824 N. Western Blvd., L.A., CA 90015      | <b>새창조교회</b><br>담임목사 : 강병재<br>주일 10:00, 11:00, 12:00<br>2284 N.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 <b>샌디에고 영락교회</b><br>담임목사 : 김명학<br>주일 10:00, 11:00, 12:00<br>2150 Wilton St., San Diego, CA 92111 | <b>안다독장로교회</b><br>담임목사 : 최용성<br>주일 10:00, 11:00, 12:00<br>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520        | <b>업비인침례교회</b><br>담임목사 : 한홍수<br>주일 10:00, 11:00, 12:00<br>28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 <b>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b><br>담임목사 : 임영민<br>주일 10:00, 11:00, 12:00<br>8501 Buena Ave., Westminster, CA 92683 | <b>요셉선교회</b><br>담임목사 : 정상호<br>주일 10:00, 11:00, 12:00<br>2728 James M Wood Blvd., L.A., CA 90068    |
| <b>월서크리스천교회</b><br>담임목사 : 임규서<br>주일 10:00, 11:00, 12:00<br>624 N. Normandie Ave., L.A., CA 90005   | <b>온혜한인교회</b><br>담임목사 : 한기홍<br>주일 10:00, 11:00, 12:00<br>1646 W. Wilshire Dr., Fullerton, CA 92833  | <b>인랜드교회</b><br>담임목사 : 최병수<br>주일 10:00, 11:00, 12:00<br>1701 N. Glen Ave., Pomona, CA 91768      | <b>주님의영광교회</b><br>담임목사 : 신승훈<br>주일 10:00, 11:00, 12:00<br>1801 S. Grand Ave., L.A., CA 90015            | <b>창대교회</b><br>담임목사 : 이준준<br>주일 10:00, 11:00, 12:00<br>173 E. Ocean St., San Bernardino, CA 92408 | <b>코너스톤 교회</b><br>담임목사 : 이종용<br>주일 10:00, 11:00, 12:00<br>1628 N.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함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br>L.A.: Tel: (323)655-0008<br>N.Y.: Tel: (718)896-4000            |



#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48.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5) : DNA먼저, 단백질 먼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성경의 창조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다. 하지만 진화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어려운 질문이다.

영국 과학자들은 달걀이 먼저라고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다(노컷뉴스 2006.05.26). 그러나 그 뒤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드디어 나왔다고 여러 국내외 신문들이 떠들썩하게 보도를 하였다. 달걀 만드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오보클레딘-17(OC-17)’이라는 단백질이 난소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니 달걀이 먼저가 아니라 달걀이 먼저라는 것이다(The Sun, 2010.07.14).

이 새로운 기사를 보고 적잖은 크리스천들이 흥분했던 것 같다. 한 학생이 강의실에 이 기사를 가지고 와서 기뻐하며 나에게 알려준 기억이 있다. 그동안 성경과 반대되는 주장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 힘들었던 차에 모처럼 성경과 같은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의 말이 반갑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커다란 위안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과학을 대하는 크리스천들의 중대한 실수가 담겨 있다.

앞에 소개한 두 기사에서 보듯이 과학적 설명, 특별히 어떤 것의 기원에 대한 과학자들의 설명은 수시로 뒤바뀌고 있다.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증거 하나만 발견되면 통째로 설명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고, 유명한 과학자가 말하면 거기에 줄을 서는 풍조도 비일비재하다.

과학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과학을 통해서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성경을 믿는 근거로서 과학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오류가 없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 발견이나 주장을 판단해야 옳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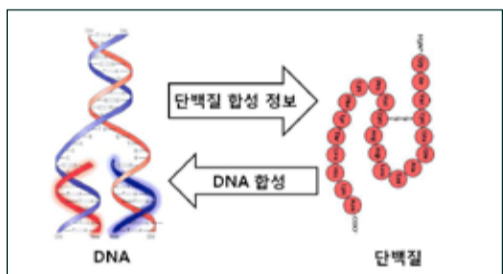
세포를 연구해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란 질문과 유사하지만 이 질문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 있다. ‘생명체의 정보인 DNA가 먼저냐, 이 DNA를 만들어내는 생명체의 기계들(단백질들이 먼저냐?)’ 닭과 달걀의 경우는 어느 것이든 한 가지만 있으면 다른 것이 만들어 질 수 있다. 달걀이 있으면 닭이 만들어지고, 닭이 있

으면 달걀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DNA와 단백질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DNA 정보만으로는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없고 단백질만 있어도 DNA는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는 DNA에 있고, 이 DNA는 그 단백질이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DNA가 없으면 단백질이 있을 수 없고, 단백질이 없으면 DNA가 존재할 수 없는 형국이다.

진화론자들은 엄청난 길이의 DNA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수백 종류의 단백질도

## 닭과 달걀의 경우 한 가지만 있으면 가능하나 DNA와 단백질의 경우는 둘 다 동시에 있어야



**DNA와 단백질의 상호 관계**  
DNA와 단백질은 상호 의존적이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처음부터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 가지 형태의 5탄당(D-형의 Ribose)으로만 이루어진 수천만-수십억 개 길이의 DNA도 우연히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고, 한 가지 형태(L-형)의 아미노산만 수백 개 연결된 단백질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

우연히 같은 형태의 D-형 Ribose나 같은 형태의 L-형 아미노산만으로 늘어놓을 확률도 가능성의 한계 1/1050을 훨씬 벗어날 뿐 아니라 각 DNA나 L-형 아미노산들의 단위체들이 화학결합을 이루어 모두 한 줄로 연결될 가능성은 믿음으로만 가능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작위론 연결되어 실질적인 정보 없이 형식만 갖춘 DNA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고, 마찬가지로 기능이 없는 단백질도 우연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그런데, 각자 우연히 만들어진 DNA 정보와 단백질에 담긴 모든 정보가 서로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면 이것은 기적 말고는 설명할 길

이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러시아 말로 된 어떤 과학 정보가 손에 들어온 적이 있었다. 영어와 비슷한 알파벳도 있지만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었다. 이 뜻 모를 정보를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정보가 약 500만 개의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 정보와 그 부품을 만드는 기계에 대한 정보 그리고, 비행기 조립까지를 설명하는 정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자.

한편, 어떤 비행기를 조사해보았더니 놀랍게도 그 부품과 조립 방법이 그 러시아 정보가 지시한대로 되어있었다면 그 정보와 비행기는 전혀 별개로 우연히 존재한 것일까? 그 정보와 비행기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정보 교환 없이 각각 만들었는데 우연히 100%의 상관성이 있다면 기적 말고 달리 이 결과들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세포의 DNA와 단백질들은 마치 비행기의 정보와 비행기의 부품들과 같은 관계 이상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DNA는 단백질이 만들고 단백질은 DNA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진다.

“단백질을 만드는 DNA가 먼저냐, 그 DNA를 만드는 단백질이 먼저냐?” 가장 논리적인 대답은 DNA 정보와 DNA 정보를 만드는 단백질들이(순서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적 존재에 의해 동시에 기적적으로 같은 세포 안에 존재해야만 된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하시며 그대로 되어”(창:1:11).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하시라(그대로 되니라)”(창 1:24).

약 500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보잉 747 비행기의 부품 수보다도 수백 배 더 많은 정교한 부품들로 구성된 한 개의 세포는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지적 존재를 말해주고 있다. 성경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때 이미 이렇게 선언하였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롬:1:20).

사도 바울 당시보다 지금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아직도 아니 오히려 이 사실이 더욱 확인되어 질뿐이다. 미생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위대한 과학자 루이 파스퇴르(Louis Pasteur)는 ‘과학을 통해 더 알아 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기가 막히게 하는 창조자 앞에 서게 된다’고 고백을 하였던 것이다.

엄청난 DNA 정보와 생명체에 필요한 모든 정교한 부품들을 동시에 존재하게 하여 생명체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고 주장하신 분은 (내가 알기에) 성경의 하나님 한 분 뿐이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11:3).

성경은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 이 하나님 형상 외에는 창조주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그 분을 찾을 존재가 없다. 그러나 아쉽게도 거짓 과학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어지도록 새물게 되어(골3:1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다음호에 계속)

# 영성칼럼



**이희영 사모**(뉴저지복음성서교회)

## 왜 선악과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6-17).

진리를 알고픈 간절한 목마름이 이끌어 창세기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모로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 약속의 말씀대로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에 허다한 이해되지 않는 말씀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의의가 배일들이 겹겹히 서서히 마음의 눈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비록 초보 단계이겠지만 궁금했던 질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만나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려합니다.

창세기 선악과를 묵상할수록 참으로 많은 질문들이 마음속에 빚발쳤습니다. 왜 사람의 하나님이라면서 인간에게 이리 고통스런 인생을 주셨는가? 그리고 마귀는 왜 그 많은 것 중에 하필 선악과를 따먹도록 인간을 유혹했는가?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작동하는 로봇, 기계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과 사귀기 가능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대로 따르기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하여 그분의 자녀되어 그 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누리고 그 분과 더불어 만물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매니저로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내게 미워하는 기능이 없어서 사랑을 한다면 아무래도 질적으로 떨어지는 존재이겠지요. 거룩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악하고 더러운 상태에 빠져 오히려 죽기로 반항하며 죄의 고통으로 자신을 찌르는 죄된 나를 구해주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엄청난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 통해 만납니다. 십자가의 품은 사랑을 깊이 체험할수록 도무지 품어지지 않는 고소도처 같은 이들을 만날 때 한계를 절감합니다. 용서하려 할수록 치미는 분노를 감당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향한 주님의 만지시는 파스한 손길을 만납니다. 십자가의 품은 끝없는 용서의 마음과 하나가 되며 하나님 사랑의 심장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고 그대 죄를 먹고 살던 죄인 하나가 진정으로 주님 닮은 이로 성화되는 영광의 발을 디디게 됩니다.

아무리 능력과 재물과 지위가 있어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쓰는가가 문제입니다. 미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의 가치를 모르면 무능력한 우주의 흠리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눈을 가리고 혼동토록 우리의 정체감을 뿌리쳐 흔든 것입니다. 실로 마음이 생명의 근원 이기에 잘 지켜야합니다. 나의 생명되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극도의 이기주의로 나만을 위해 살기만하면 인간 스스로가 온갖 악이 자행하여 서로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선악과를 따 먹도록 전적으로 유혹하는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내가 살아 있는 일본일초가 기뻐합니다. 자기의 이익위해 여전히 선악과를 따는 길에서 돌이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유의 삶을 이 세상 모두가 찾게 되길 소망합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안내

|  |   |   |  |   |   |   |   |
|--|---|---|--|---|---|---|---|
| <p><b>김포리장로교회</b><br/>담임목사: 조용철<br/>주일 예배: 오전 11:00<br/>수요 예배: 오후 7:00<br/>새가족 기도: 오전 8:00</p> <p>Tel: (410)237-7979, Fax: (703)267-8191<br/>6534 W. Desert Dr., Rt. 1, Las Vegas, NV 89148</p>  | <p><b>남부한인장로교회</b><br/>담임목사: 송성철<br/>주일 1부 예배: 오전 8:30<br/>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br/>수요 기도: 오후 8:00<br/>새가족 기도: 오전 8:00</p> <p>Tel: (703)267-8291, Fax: (703)267-1928<br/>3819 McKee Rd., Chesley, NC 28719</p>                          | <p><b>덴버한인장로교회</b><br/>담임목사: 김유<br/>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br/>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br/>수요 기도: 오후 7:00</p> <p>Tel: (303)427-8885, Fax: (303)427-8243<br/>7765 Ripston St., Arvada, CO 80009</p>   | <p><b>풍고메리교회</b><br/>담임목사: 최해근<br/>주일 1부 예배: 오전 8:30<br/>주일 2부 예배: 오전 9:30<br/>수요 예배: 오전 11:00<br/>새가족 기도: 오후 8:00</p> <p>Tel: (910)722-8881, Fax: (910)722-7777<br/>3290 Monte Rd., Lenoir, NC 28645</p>                            | <p><b>벅스카운타장로교회</b><br/>담임목사: 김종문<br/>주일 1부 예배: 오전 8:00(한국)<br/>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미국)<br/>수요 예배: 오전 11:00(미국)<br/>새가족 기도: 오전 8:00</p> <p>Tel: (703)267-9379, Fax: (703)267-9396<br/>1620 Woodburne Rd., Lenoir, NC 28647</p> | <p><b>맨얼교회</b><br/>담임목사: 진용태<br/>주일 1부 예배: 오전 7:00<br/>주일 2부 예배: 오전 8:15<br/>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br/>수요 예배: 오전 8:00<br/>새가족 기도: 오전 8:00</p> <p>Tel: (410)237-7979, Fax: (410)237-7979<br/>3760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 <p><b>보스톤장로교회</b><br/>담임목사: 권택영<br/>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br/>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br/>수요 기도: 오전 8:00<br/>새가족 기도: 오전 8:00</p> <p>Tel: (617)267-4579, Fax: (617)267-4579<br/>1 Main St., Hopkinton, MA 01748</p>                        |   |
| <p><b>볼티모어 교회</b><br/>담임목사: 이영철<br/>주일 1부 예배: 오전 8:30<br/>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영국)<br/>수요 예배: 오전 11:00<br/>새가족 기도: 오전 8:00</p> <p>Tel: (410)237-8645, Fax: (410)237-8645<br/>1700 Beulah Ave., Mt. Airy, MD 21082</p>                    | <p><b>새시온침례교회</b><br/>담임목사: 정용호<br/>주일 1부 예배: 오전 8:30<br/>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영국)<br/>수요 예배: 오전 11:00<br/>새가족 기도: 오전 8:00</p> <p>Tel: (301)455-0191<br/>5607 Pacific Ave., S.E. P.O. Box 5508<br/>Lacey, WA 98509</p>                  | <p><b>사이어링강장로교회</b><br/>담임목사: 박은일<br/>주일 1부 예배: 오전 8:30<br/>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br/>수요 예배: 오전 11:00<br/>새가족 기도: 오전 8:00</p> <p>Tel: (803)227-0881, Fax: (803)227-1148<br/>4640 N.E. 103rd St., Seattle, WA 98125<br/>www.kapoweb.org</p> | <p><b>알칸사 제자교회</b><br/>담임목사: 권남수<br/>주일 1부 예배: 오전 11:30<br/>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br/>수요 예배: 오전 7:30<br/>새가족 기도: 오전 8:00</p> <p>Tel: (501) 820-8049 / 사서: (501)820-8178<br/>810 Starry Rd., Little Rock, AR 72211<br/>www.kjusa.com</p> | <p><b>앵커리지델린교회</b><br/>담임목사: 유재일<br/>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br/>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br/>수요 예배: 오전 11:00<br/>새가족 기도: 오전 8:00</p> <p>Tel: (907)244-8444, Fax: (907)244-3122<br/>3229 Harwood Rd., Anch., AK 99518</p>                | <p><b>앨파오델린교회</b><br/>담임목사: 하대수<br/>주일 1부 예배: 오전 8:00(영국)<br/>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br/>수요 예배: 오전 7:30</p> <p>Tel: (281)715-7795-4480, 사서: (281)715-7795-4365<br/>3415 Atlas Ave., El Paso, TX 79904</p>                                     | <p><b>영생장로교회</b><br/>담임목사: 이윤권<br/>주일 1부 예배: 오전 7:30<br/>주일 2부 예배: 오전 8:30<br/>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br/>수요 예배: 오전 8:00<br/>새가족 기도: 오전 8:00</p> <p>Tel: (703)267-8291, Fax: (703)267-8291<br/>728 Wilmer Rd., Yorktown, VA 23064</p> |   |
| <p><b>온누리교회</b><br/>담임목사: 김성환<br/>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br/>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br/>수요 예배: 오전 8:00</p> <p>Tel: (254)624-8765, (254)621-8337<br/>428 W. 9th St., Odessa, TX 79701</p>   | <p><b>워싱턴아시아장로교회</b><br/>담임목사: 현세영<br/>주일 1부 예배: 오전 8:00<br/>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br/>수요 예배: 오전 11:00<br/>새가족 기도: 오전 8:00</p> <p>www.asia.org<br/>Tel: (703)267-4427, Fax: (703)267-4448<br/>4213 Metcalf St., Alexandria, VA 22303</p> | <p><b>주 예수 교회</b><br/>담임목사: 배현찬<br/>주일 1부 예배: 오전 8:00<br/>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br/>수요 예배: 오전 11:00<br/>새가족 기도: 오전 8:00</p> <p>www.jpc.org<br/>Tel: (800)290-7900, Fax: (800)290-7914<br/>10291 Koolhaas Rd., Richmond, VA 23222</p>       | <p><b>큰무리교회</b><br/>담임목사: 나봉삼<br/>주일 1부 예배: 오전 8:00<br/>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br/>수요 예배: 오전 11:00<br/>새가족 기도: 오전 8:00</p> <p>Tel: (410)237-8291, Fax: (410)237-8291<br/>329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p>               | <p><b>타코마 삼일교회</b><br/>담임목사: 정해근<br/>주일 1부 예배: 오전 8:30<br/>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br/>수요 예배: 오전 11:00<br/>새가족 기도: 오전 8:00</p> <p>Tel: (253)535-1269<br/>7401 S. Valley St., Tacoma, WA 98409</p>                                  | <p><b>타코마 새생명교회</b><br/>담임목사: 임규영<br/>주일 1부 예배: 오전 8:00<br/>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br/>수요 예배: 오전 11:00<br/>새가족 기도: 오전 8:00</p> <p>Tel: (253)535-6207, (253)535-6204<br/>8702 E. 8th St., Tacoma, WA 98445</p>                                 | <p><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br/>담임목사: 김수영<br/>1부 예배: 오전 8:00<br/>2부 예배: 오전 11:00<br/>수요 예배: 오전 11:00<br/>새가족 기도: 오전 8:00</p> <p>Tel: (253)279-8275, Fax: (253)279-8275<br/>8424 E. Tulane Ave., Tacoma, WA 98444</p>                     |   |
| <p><b>팜파장로교회</b><br/>담임목사: 윤경용<br/>주일 1부 예배: 오전 8:30<br/>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영국)<br/>수요 예배: 오전 11:00<br/>새가족 기도: 오전 8:00</p> <p>www.fpcpa.com<br/>Tel: (480)726-0191, Fax: (480)726-3927<br/>1150 E. Debono Rd., Chandler, AZ 85286</p> | <p><b>허트포드제임장로교회</b><br/>담임목사: 김선만<br/>주일 1부 예배: 오전 8:30<br/>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br/>수요 예배: 오전 11:00<br/>새가족 기도: 오전 8:00</p> <p>Tel: (860) 842-8736 Fax: (860) 842-8696<br/>306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 <h2 style="margin: 0;">하와이지역</h2>   |  | <p><b>아가페선교침례교회</b><br/>담임목사: 여남수<br/>주일 1부 예배: 오전 8:30<br/>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br/>수요 예배: 오전 11:00<br/>새가족 기도: 오전 8:00</p> <p>Tel: (808)729-9011<br/>1635-A Palms Ave., Honolulu, HI 96819</p>                                | <p><b>아덴장로교회</b><br/>담임목사: 송정현<br/>주일 1부 예배: 오전 8:00<br/>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br/>수요 예배: 오전 7:00<br/>새가족 기도: 오전 8:00(미국)</p> <p>Tel: (908)729-1804, Cell: (908)219-6622<br/>1562 8th Ave., Avenetuz, NJ 08512</p>                           | <p><b>하와이 한국교회</b><br/>담임목사: 김순관<br/>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br/>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br/>수요 예배: 오전 7:00<br/>새가족 기도: 오전 8:00(미국)</p> <p>Tel: (808)277-2266/967-1776/642-2222<br/>1361 E. Seward St., Hono., HI 96914</p>                 | <p><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br/>담임목사: 조원규<br/>주일 1부 예배: 오전 8:00<br/>주일 2부 예배: 오전 8:30<br/>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br/>수요 예배: 오전 7:00<br/>새가족 기도: 오전 8:00</p> <p>Tel: (808)947-6252, Fax: (808)947-6167<br/>www.honolulu.org<br/>2322 Meirua St., Honolulu, HI 96822</p> |



# “지금 우리는 중대한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 미주한기총 SB48 법안 반대서명 호소문 발송

미주한인 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정명 목사·사진)는 지난 7월 14일 통과된 SB48 법안에 관한 시급함을 직시하고 '목사님들에게 긴급하게 드리는 호소문'이란 제하의 공문을 보내왔다.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는 이 법이 시행되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결혼제도가 완전히 와해 된다 △이런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성장하면 결혼에 대한 정체성 상실로 혼돈 속에 방황하며 살아가게 된다. △에이즈나 기타 질병들이 창궐될 수 있다 △신앙양심을 가진 교사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일에 관해 목사들이 앞장서서 막아

주길 호소하고 있다. 이 법안은 9월 26일까지 65만 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이 법의 시행을 일단 막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다. 이 반대 서명은 18세 이상 시민권자로 유권자등록한 사람만 서명할 수 있다. 용지가 필요하거나 유권자 등록에 관한 문의는 미주평안교회(213-381-2202)나 김사라 사모(408-309-4084/saraspring2009@gmail.com)에게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성자 기자)

### 64차 유엔국제기구세계대회 한인대학생들 대표단 참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시민네트워크'를 주제로 열린 '제64차 유엔 국제기구(NGO) 세계대회'가 9월 3일부터 5일까지 독일 본(Bonn)에서 열렸다. 독일 본은 현재 150여 개의 유엔 산하 국제기구들이 활동하고 있는 '독일의 유엔시티'라고 불리

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키오 아카사카 유엔사무차장과 위르겐 닙프크 독일 본 시장을 포함한 국제적인 지도자들과 1000여 명의 유엔 산하 국제기구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2일 첫날 개최식에서 키오 아카사카 유엔사무차장은 "1922년 리오 데자네이로 환경협약이후 환경문제가 많은 부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간 여러 나라들에서 환경문제로 발생한 홍수와 자연재난을 생각할 때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유엔 산하 한국 국제기구 대표단으로 유엔공보국과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회원기구인 GCS International 국제본부(총재 조정원 박사)와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평화나눔공동체(대표 최상진 목사) 소속 대학생 유엔대표단이 참석했다.

▲문의 : (571)259-4937

##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달란트

### 어린이&유스 워십찬양단 SOW 제1회 정기 공연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어린이 & 유스(Youth) 워십 찬양단 SOW(Seeds Of Worship) 제1회 정기공연이 지난달 27일 남가주 빛내리교회(담임 박용덕 목사)에서 개최됐다.

2010년 10월 약 20여명의 어린이들로 구성된 출범한 SOW 워십 찬양단은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본 찬양단은 하이텍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정서가 매달라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에스터박 전도사(CCM 가수)가 "재능 있는 아이들의 달란트를 세속 문화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창단했다.

제1회 정기공연을 마친 SOW 찬양팀은 제2기생들을 모집하며 도약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다. 대상은 K-12학년으로 찬양과 율동을 배우기를 원하고 관심이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본 찬양팀에 팀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9월 10일 인터뷰를 통해 가능하며 부득이 10월에 참석하지 못하는 어린이는 전화로 예약하고 9월까지 등록하면 된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오전과 오후반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오전반은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오후반은 2개 반으

로 제1반은 킨더가든부터 3학년까지, 제2반은 4학년부터 8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연습한다.

형제가 입단하거나 목회자 자녀들에게는 특전이 주어지며 자세한 것은 (714)904-8434로 문의하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어린이&유스 워십찬양단 SOW 단원들



템피장로교회가 주최한 제1회 유학정책 전략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 “유학에서 취업까지”

### 템피장로교회 제1회 유학정책 전략세미나

템피장로교회(담임 윤정용 목사)는 지난달 20일 "유학에서 취업까지"라는 주제에 제 1회 유학생정책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매년 타주 혹은 한국에서 유학차 애리조나 주로 오는 많은 한국 학생들과 배우자들의 정착을 실질적으로 돕고자 준비했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이동형 집사(던킨 도너츠 서부 본부장)는 '지혜로운 미국생활을 위한 가이드'란 제목으로, 두 번째 강사로 나선 안길준 집사(ASU 컴퓨터공학과교수)는 '미국에서 학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가이드', 세 번째 강사로 나선 문성원 집사(Intel 팀장)는 '미국에서

전문적인 경력을 쌓기 위한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각각 강의했다. 본 세미나 참석자들은 매 강의마다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표했으며 오후 시간에는 테이블을 9개로 나눠 20여명의 강사들과 심도 깊은 정착과 학업 그리고 취업, 유학생 배우자들의 생활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유학 3년차인 한 참석자는 "이런 강의를 진작 들었어야 했다"며 아쉬움과 반가움을 표했다. 이 행사는 템피장로교회 여호수아장년회(회장 서정혁)와 애리조나 주립대학(A.S.U) 내에 있는 한인성경연구회 K.B.S(대표 김천호 간사)가 함께 준비했다.

주최 측은 이 행사가 크리스천과 비 크리스천 구별 없이 미국 애리조나로 오는 많은 유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정착은 물론 학업과 취업 등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행사로 자리매김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리: 이성자 기자)

주최 측은 이 행사가 크리스천과 비 크리스천 구별 없이 미국 애리조나로 오는 많은 유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정착은 물론 학업과 취업 등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행사로 자리매김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리: 이성자 기자)

주최 측은 이 행사가 크리스천과 비 크리스천 구별 없이 미국 애리조나로 오는 많은 유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정착은 물론 학업과 취업 등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행사로 자리매김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리: 이성자 기자)

주최 측은 이 행사가 크리스천과 비 크리스천 구별 없이 미국 애리조나로 오는 많은 유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정착은 물론 학업과 취업 등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행사로 자리매김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리: 이성자 기자)



미주개혁대학교 박요한 총장이 설교하고 있다

## 미주개혁대학교 가을학기 개강예배

미주개혁대학교(총장 박요한 박사)는 2011년도 가을학기 개강예배가 지난 달 29일 오후 6시30분 개최됐다.

본교 이익환 학우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김윤덕 교수가 기도 를, 이 회장이 성경봉독을 했으며 박

요한 총장이 '이때를 위하여 아닌가'(예4:4)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어 미주개혁대학교 교가를 이 날 모인 참가자들이 불렀으며 박 총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예배가 마친 후 가진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본교 박재민 실장이 학교설명회를 갖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리엔테이션 이후 친교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2011년 가을학기는 박요한 박사가 창세기 강해, 문예창작, 현대 설교학을, 조성 박사가 영어성경, 김재욱 교수가 조직신학, 김윤덕 박사가 유아교육학 개론, 권상길 박사가 사회복지학을 각각 강의한다. (박준호 기자)

## 목회서신

### '라면왕 이철호 이야기'

임지석 목사  
(나성세계로교회 담임)

그는 전쟁 중에 가족과 헤어져서 미군 부대에서 잔심부름꾼으로 연명하다가 군부대의 폭격 때 몸에 심한 파편을 받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망이라는 판정을 받고 시체실에 옮겨져 땅에 묻힐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40여 차례의 수술을 받은 끝에 절름발이의 모습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 이철호의 충격적인 인생 기록입니다. 그는 160cm의 작은 키에 얼굴도 볼품이 없었으며 가난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얘기했던 것처럼 '열등감 종합세트'로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철호는 마침내 미군 장교와 노르웨이 의사의 도움으로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노르웨이로 건너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호텔의 벨보이, 서류심부름, 잡역부, 화장실 청소부 등을 하며 전전했습니다. 그는 어느 호텔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주방장의 배려로 요리전문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라면 만드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에서는 Mr. Lee 라면이 라면의 대명사처럼 불리고 있는데 라면시장의 7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에 2,500만 개의 Mr Lee 라면이 팔렸으며 연간 2500만 달러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철호의 인생 성공담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고 노르웨이에서 그 누구보다도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처럼 인생에 성공하기까지 자신을 지탱해준 3대 경영철학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인간관계가 사업의 기반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인간관계를 중요시했습니다. 둘째로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도 있듯이 무슨 일이든 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임했습니다. 셋째로 정직과 성실을 최고의 상품으로 여겼는데 그는 단순히 라면을 팔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팔았던 것입니다. 이철호는 더 이상 열등감 종합세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 속에 두시고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최고 품격의 창조물입니다. 그의 삶은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맹이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잘 다듬어진 보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세상에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철호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만져 주시면 얼마든지 라면왕 이철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   |  |  |  |   |  |  |
|---|--|--|--|---|--|--|
| <b>낙안장로교회</b><br>담임목사: 송영진<br>주일 1부예배: 오전 8:45<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평 일 예배: 오후 2:00<br>수요일예배: 오후 5:00<br>금요일예배: 오후 8:00<br>목회기도회: 오후 8:45<br>Tel: (718) 462-7788, Fax: (718) 462-8331<br>47-20 Queens Blvd., Queens, NY 11364<br>www.nakanchurch.org | <b>뉴욕갯세미네교회</b><br>담임목사: 이계용<br>주일 1부예배: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수요일예배: 오후 1:30<br>수요일예배: 오후 8:30<br>목회기도회: 오후 8:00<br>목회기도회: 오후 9:00<br>Tel: (718) 664-3264, Fax: (718) 664-8882<br>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br>www.godsword.com   | <b>뉴욕복음장로교회</b><br>담임목사: 송영기<br>주일 1부예배: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수요일예배: 오후 2:00<br>수요일예배: 오후 8:00<br>목회기도회: 오후 8:00<br>목회기도회: 오후 8:45<br>Tel: (718) 367-6192, Fax: (718) 367-6223<br>40-04 23rd Ave., Bayside, NY 11364<br>www.nywpc.org | <b>뉴욕빌라벨리아장로교회</b><br>담임목사: 김해원<br>주일 1부예배: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수요일예배: 오후 2:00(월)~5:00(목)<br>목회기도회: 오후 8:00<br>목회기도회: 오후 11:00<br>Tel: (718) 689-8777, Fax: (718) 689-1567<br>7 Beect Hill Road, Fort Washington, NY 11760   | <b>뉴욕새사람교회</b><br>담임목사: 이종원<br>주일 1부예배: 오전 10: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30<br>수요일예배: 오후 8:30<br>목회기도회: 오후 8:00<br>목회기도회: 오후 9:00<br>Tel: (718) 487-2890, Fax: (718) 487-2891<br>45-64 152 St., Flushing, NY 11358      | <b>뉴욕순복음안도교회</b><br>담임목사: 이만호<br>주일 1부예배: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수요일예배: 오전 11:00<br>수요일예배: 오후 1:30<br>목회기도회: 오후 8:30<br>목회기도회: 오후 9:30<br>목회기도회: 오후 10:30<br>목회기도회: 오후 11:30<br>Tel: (718) 467-7838 / CP: (718) 468-7777<br>45-64 152 St., Flushing, NY 11358<br>www.nywpc.org | <b>뉴욕 중부교회</b><br>담임목사: 김재열<br>주일 1부예배: 오전 8: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0:30<br>수요일예배: 오후 2:30<br>목회기도회: 오후 8:00<br>목회기도회: 오후 8:45(월-목)<br>Tel: (718) 329-2781, Fax: (718) 329-2782<br>267-02 Nassau Ave., Lido Beach, NY 11762        |
| <b>뉴욕초대교회</b><br>담임목사: 김승희<br>주일 1부예배: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0:30<br>수요일예배: 오후 2:00<br>목회기도회: 오후 8:00<br>목회기도회: 오후 8:45(월-목)<br>Tel: (718) 628-3321, Fax: (718) 627-6378<br>71-0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 <b>뉴욕효신장로교회</b><br>담임목사: 문석호<br>원도목사: 박지락<br>주일 1부예배: 오전 7:15<br>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수요일예배: 오후 2:00<br>목회기도회: 오후 8:00<br>목회기도회: 오후 8:30<br>목회기도회: 오후 9:00<br>목회기도회: 오후 9:30<br>목회기도회: 오후 10:00<br>목회기도회: 오후 10:30<br>Tel: (718) 310-3736, Fax: (718) 310-3737<br>42-15 169th St., Flushing, NY 11358 | <b>뉴저지성도교회</b><br>담임목사: 허상희<br>주일 1부예배: 오전 11: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2:30<br>수요일예배: 오후 8:00<br>목회기도회: 오후 8:00(월-목)<br>목회기도회: 오후 8:30(월-목)<br>Tel: (201) 342-6184, Fax: (201) 342-6264<br>23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 <b>리빙스톤교회</b><br>담임목사: 유상열<br>주일 1부예배: 오전 10: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30<br>수요일예배: 오후 8:30<br>목회기도회: 오후 8:00<br>목회기도회: 오후 9:00<br>목회기도회: 오후 9:30<br>Tel: (718) 361-7171, Fax: (718) 361-3221<br>27-67 104 St., Flushing, NY 11368  | <b>봉아일랜드성경교회</b><br>담임목사: 김석형<br>주일 1부예배: 오전 11: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2:30<br>수요일예배: 오후 8:30<br>목회기도회: 오후 8:00<br>목회기도회: 오후 9:00<br>Tel: (212) 338-7727, Fax: (212) 338-6284<br>230 121st Ave., Hightstown, NY 11230 | <b>순복음 뉴욕교회</b><br>담임목사: 김남수<br>주일 1부예배: 오전 8:30(월-목)<br>주일 2부예배: 오전 10:30<br>수요일예배: 오후 2:30<br>목회기도회: 오후 8:00<br>목회기도회: 오후 8:30<br>목회기도회: 오후 9:00(월-목)<br>목회기도회: 오후 9:30(월-목)<br>Tel: (718) 467-7838 / CP: (718) 468-7777<br>45-64 152 St., Flushing, NY 11358                        | <b>어린양 교회</b><br>담임목사: 김수택<br>주일 1부예배: 오전 8: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0:30<br>수요일예배: 오후 2:30<br>목회기도회: 오후 8:00<br>목회기도회: 오후 8:30<br>목회기도회: 오후 9:00<br>Tel: (718) 689-8228, Fax: (718) 689-8432<br>89-38 47th Ave., Midsouth, NY 11757 |
| <b>주비전교회</b><br>담임목사: 이규본<br>주일 1부예배: 오전 12:30<br>주일 2부예배: 오전 8:30<br>목회기도회: 오후 5:30<br>목회기도회: 오후 8:00<br>Tel: (718) 767-6884, Fax: (718) 767-6885<br>70 Flushing Rd., Manhattan, NY 11350  | <b>주신장로교회</b><br>담임목사: 김용익<br>주일 1부예배: 오전 12:00<br>주일 2부예배: 오전 2:00<br>목회기도회: 오후 8:00<br>목회기도회: 오후 8:30<br>목회기도회: 오후 9:00<br>Tel: (718) 310-7981, Fax: (718) 310-7982<br>188-12 73rd Street, Flushing, NY 11358  | <b>중부뉴저지장로교회</b><br>담임목사: 이현호<br>주일 1부예배: 오전 11: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2:00<br>수요일예배: 오후 8:00<br>목회기도회: 오후 8:00<br>목회기도회: 오후 8:30<br>Tel: (201) 342-6222, Fax: (201) 342-6242<br>445 Old Post Road, Rahway, NJ 07067                                 | <b>핀즈장로교회</b><br>담임목사: 장영순<br>주일 1부예배: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0:30<br>수요일예배: 오후 8:00<br>목회기도회: 오후 8:00<br>Tel: (718) 688-4540, Fax: (718) 688-7788<br>542-17 Flushing Ave., Flushing, NY 11355<br>www.kjwpc.org   | <b>핀즈한인교회</b><br>담임목사: 이규철<br>주일 1부예배: 오전 8:00(월-목)<br>주일 2부예배: 오전 10:30<br>수요일예배: 오후 11:30<br>목회기도회: 오후 8:00<br>목회기도회: 오후 9:00<br>Tel: 718-472-1180<br>88-06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br>www.gnscc.org | <b>한미음침교회</b><br>담임목사: 박아름<br>주일 1부예배: 오전 11: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2:30<br>수요일예배: 오후 2:30<br>목회기도회: 오후 8:00<br>목회기도회: 오후 8:30(월-목)<br>목회기도회: 오후 9:00(월-목)<br>Tel: (718) 277-1103, Fax: (718) 277-0104<br>79 School St., Great Neck, NY 11042<br>Email: newmichurch@gmail.com              |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을 찾습니다</b><br>L.A.: Tel: (323) 666-0009<br>Fax: (323) 666-0048<br>N.Y.: Tel: (718) 689-4450<br>Fax: (718) 689-0074   |
|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b>   | <b>브라질 서울교회</b><br>담임목사: 허경남<br>주일 1부예배: 오전 11: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2:00<br>목회기도회: 오후 8:00<br>목회기도회: 오후 8:45<br>Tel: (577) 1485, Fax: (577) 1484<br>Rio Avenue, Rio de Janeiro, Brazil<br>Post-Box 01229-019   | <b>브라질 한인교회</b><br>담임목사: 한봉현<br>주일 1부예배: 오전 8: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목회기도회: 오후 7:30<br>목회기도회: 오후 8:00<br>목회기도회: 오후 8:45<br>Tel: (011) 55-11-2070-8222, 8277-3141<br>R. Lúcio Alves 18 Liberdade SP CEP 11065-010                             | <b>브라질 새소망교회</b><br>담임목사: 박재호<br>주일 1부예배: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0:30<br>목회기도회: 오후 8:00<br>목회기도회: 오후 8:30<br>목회기도회: 오후 9:00<br>목회기도회: 오후 9:30<br>Tel: (51) 3622-8724, 8036-1165<br>Rua Santa Rita, 113-115-117-119-121-123-125-127-129-131-133-135-137-139-141-143-145-147-149-151-153-155-157-159-161-163-165-167-169-171-173-175-177-179-181-183-185-187-189-191-193-195-197-199-201-203-205-207-209-211-213-215-217-219-221-223-225-227-229-231-233-235-237-239-241-243-245-247-249-251-253-255-257-259-261-263-265-267-269-271-273-275-277-279-281-283-285-287-289-291-293-295-297-299-301-303-305-307-309-311-313-315-317-319-321-323-325-327-329-331-333-335-337-339-341-343-345-347-349-351-353-355-357-359-361-363-365-367-369-371-373-375-377-379-381-383-385-387-389-391-393-395-397-399-401-403-405-407-409-411-413-415-417-419-421-423-425-427-429-431-433-435-437-439-441-443-445-447-449-451-453-455-457-459-461-463-465-467-469-471-473-475-477-479-481-483-485-487-489-491-493-495-497-499-501-503-505-507-509-511-513-515-517-519-521-523-525-527-529-531-533-535-537-539-541-543-545-547-549-551-553-555-557-559-561-563-565-567-569-571-573-575-577-579-581-583-585-587-589-591-593-595-597-599-601-603-605-607-609-611-613-615-617-619-621-623-625-627-629-631-633-635-637-639-641-643-645-647-649-651-653-655-657-659-661-663-665-667-669-671-673-675-677-679-681-683-685-687-689-691-693-695-697-699-701-703-705-707-709-711-713-715-717-719-721-723-725-727-729-731-733-735-737-739-741-743-745-747-749-751-753-755-757-759-761-763-765-767-769-771-773-775-777-779-781-783-785-787-789-791-793-795-797-799-801-803-805-807-809-811-813-815-817-819-821-823-825-827-829-831-833-835-837-839-841-843-845-847-849-851-853-855-857-859-861-863-865-867-869-871-873-875-877-879-881-883-885-887-889-891-893-895-897-899-901-903-905-907-909-911-913-915-917-919-921-923-925-927-929-931-933-935-937-939-941-943-945-947-949-951-953-955-957-959-961-963-965-967-969-971-973-975-977-979-981-983-985-987-989-991-993-995-997-999-1001-1003-1005-1007-1009-1011-1013-1015-1017-1019-1021-1023-1025-1027-1029-1031-1033-1035-1037-1039-1041-1043-1045-1047-1049-1051-1053-1055-1057-1059-1061-1063-1065-1067-1069-1071-1073-1075-1077-1079-1081-1083-1085-1087-1089-1091-1093-1095-1097-1099-1101-1103-1105-1107-1109-1111-1113-1115-1117-1119-1121-1123-1125-1127-1129-1131-1133-1135-1137-1139-1141-1143-1145-1147-1149-1151-1153-1155-1157-1159-1161-1163-1165-1167-1169-1171-1173-1175-1177-1179-1181-1183-1185-1187-1189-1191-1193-1195-1197-1199-1201-1203-1205-1207-1209-1211-1213-1215-1217-1219-1221-1223-1225-1227-1229-1231-1233-1235-1237-1239-1241-1243-1245-1247-1249-1251-1253-1255-1257-1259-1261-1263-1265-1267-1269-1271-1273-1275-1277-1279-1281-1283-1285-1287-1289-1291-1293-1295-1297-1299-1301-1303-1305-1307-1309-1311-1313-1315-1317-1319-1321-1323-1325-1327-1329-1331-1333-1335-1337-1339-1341-1343-1345-1347-1349-1351-1353-1355-1357-135 |   |  |  |



# 동부교계 게시판



## 퀸즈장로교회 추계 선교바자회

퀸즈장로교회(담임 장영춘 목사) 추계 선교바자회가 9월 24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본 교회 지하친교실과 파킹장에서 열린다. 남녀 전도회와 청년부, 영어예배부 등이 참여하는 본 바자회의 품목은 각종 비빔밥 등 식사류와 김치류, 동양식품, 의류, 생활용품, 선물용품, 문구류, 전자성경, 사진 촬영 등 다양하다. ▲문의:(718)886-4040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영성훈련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가 2011학년도 가을학기 개강에 앞서 영성훈련을 실시한다. 일시는 9월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매일 저녁 8시. 강사는 이정현 목사(나성서부교회 담임)가 맡는다. ▲문의:(718)463-7163

## 뉴욕어린이양교회 바른 영성을 위한 말씀집회

뉴욕어린이양교회(담임 김수태 목사)가 15일(목)부터 18일(주)까지 바른 영성을 위한 말씀집회를 갖는다. 강사는 이종호 목사(평화교회 담임)와 김연희 목사(신생중앙교회 담임)로 15일, 16일 오후 8시30분에는 이종호 목사가, 17일 저녁과 18일 주일예배는 김연희 목사가 맡는다. ▲문의:(718)899-8309

## 고어헤드선교회 기금모금 음악회

고어헤드선교회(대표 이상조 목사)가 지난 23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뉴저지 레오니아에 있는 빠르페(Parfae)제과점에서 한국 고아돕기 기금모금 음악회를 갖고 있다. 12월까지 이어지는 이 무료 음악회는 대금연주자 김병만 씨와 선교회 밴드 부원들이 무대를 마련한다. ▲문의:(201)852-3600

## 분노조절 세미나

패밀리리치(대표 정성숙 박사) 뉴욕지부(소장 임근영 목사)가 주최하는 분노조절 세미나가 9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개최된다. 참가비는 120달러. ▲문의:(718)224-4477

## 제 3회 오픈 커뮤니티

뉴욕침사랑교회(담임 은희곤 목사)가 주최하는 제 3회 오픈 커뮤니티-한국 문화와 음식 페스티벌이 9월 25일(주) 오후 3시30분부터 시작된다. 이날 저녁식사와 경품이 제공 된다. 이 행사에 매년 5백명 이상이 참여했다. ▲문의:(516)485-2102, (978)239-7456

## 세계자살예방의 날 행사

9월 10일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자살예방협회(IASP)가 정한 세계자살예방의 날(World Suicide Prevention Day) 50주년을 맞아 '미동부생명의전화'가 9월 10일 공개강좌 참석자들을 우선으로 '자살 예방 17증상, 자살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상황 14가지, 도울 수 있는 7가지 방법과 즉각 대처방법 5가지'에 관한 팸플릿을 동포 가정에 배포한다. 생명의전화는 1)9월 10일 오후 8시 쉼볼 커기 2)자살예방 깨우치는 행사 참여하기 3)자살예방위한 팸플릿 배포 등의 행사를 갖는다.



뉴욕리폼드신학교 2011 가을학기 개강예배를 마치고 교수 학생들이 기념촬영했다.

# “작은 희생과 기도 통해 기적 일어나길”

## 뉴욕교협, 할렐루야복음화대회 마지막 준비기도회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이 오는 9월 할렐루야복음화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준비기도회를 가졌다.

지난 2일 새연약교회(담임 이희선 목사)에서 열린 기도회는 김연규 목사 인도로, 기도 이주의 장로(부이사장), 성경봉독 전희수 목사, 설교 장석진 목사, 특별기도, 광고 허윤준 목사, 축도 김종덕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적을 일으키는 대회가 되게 하라”(눅9:10-17)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장석진 목사는 “1980년부터 시작된 할렐루야대회는 뉴욕동포들을 전도하는 대회로 시작됐으나 나중에는 믿는 자들을 더 강하게 무장시키는 복음화대회로 열리고 있다”며, “뉴욕이여, 성령의 생기로 충만하라”는 슬로건을 갖고 열리는 이번 대회가 셋째다. 들녘에서 5천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목사는 “황량한 들만 뉴욕교계에 (1)보잘 것 없는 것을 통해 (2)희생을 통해 (3)기도를 통해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영육 간에 참된 양식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작은 것을 통해 아름답게 쓰

여지는 성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별기도는 △미국과 조국을 위하여 △뉴욕동포사회의 복음화와 교계를 위하여 △할렐루야2011 대회를 위하여 △강사 서임중 목사를 위하여(성인), 강사 폴 코디 전도사를 위하여(청소년), 최호섭 목사를 위하여(어린이), 준비위원들을 위하여, 온 교회와 성도들의 참가를 위하여, 날씨를 위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대회후원을 위하여, 지도자 컨퍼런스를 위하여(강사, 등록 및 준비) 제목으로 황영송 목사, 이지용 목사, 이봉삼 목사가 각각 기도 인도했다.

허윤준 총무는 첫날 참석율은 교협 책임이라며 각 교회들이 적극 참석해주시기를 당부하고 컨퍼런스와 장학금, 단기선교 후원들을 위한 후원금 지원도 요청했다.

기도회를 마친 후 이희선 준비위원장의 준비사항 보고가 있었다. 홍보전단지 배부와 연합찬양대 연습관계, 노방홍보 등을 안내를 했다.

2011할렐루야복음화대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성인대회: 9월 9일(금), 10일(토) 오후 7시30분 11일(주) 오후 5시30분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 강사 서임중 목사(포항중앙교회) △어린이대회: 성인대회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강사 최호섭 목사(뉴욕영락교회) △청소년EM대회: 10월 21일(금)-23일(주) 오후 7시 프



GKYM 대회 기자회견. 왼쪽부터 윤 현 이완형 손윤희(캐나다), 김수태 최창섭 김혜택 공동대회장, 정성만 권순원 목사, 김은열 전도사, 이동현 선교사. 이외에 목회자로 김중국 영영호 목사가 협력하고 있다.

## “열방을 향한 아름다운 발걸음”

### 세계한인청년축제 로체스터'11, 12월 27-30일

2년 전 로체스터에서 개최됐던 GKYM(세계한인청년축제) 대회가 올해 12월 27일(화)부터 30일(금)까지 로체스터(Rochester Riverside Convention Center)에서 Rochester '11이란 이름으로 열린다.

미동부와 캐나다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열방을 향한 아름다운 발걸음”(롬10:14-15)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 홍보를 위해 주최 측은 지난 2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동 대회는 전 세계에 흩어진 차세대 청년들을 선교의 일꾼으로 세워야지라도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청년 선교동원 운동이며 미전도 종족 선교운동이다. 또 이를 통해 뉴욕을 포함한 북미주한인교회 연합과 부흥도 목표를 삼고 있다.

대회장 김혜택 목사는 “올해 대회는 많은 2세 청년들이 스텝으로 뛰는 만큼 더더욱 차세대를 문화에 맞는 1세와 2세가 함께할 수 있는 선교대회가 될 것”이라며 “목회자들은 뒤에서 밀어주고 1.5세나 2세 청년들이 모든 것을 진행해 차세대가 세계 선교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사무총장 이동열 선교사는 “2009년 2회 대회 결과보고를 하고(참석 2600여명, 단기선교 521명, 장기선교 53명 헌신) 2차 대회 후 아이티에서 청년 12명과 합숙 선교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선교센터가 GKYM 대회의 현장선교가 됐다”고 말했다.

행정팀장 김은열 전도사는 “미주 지역에 본 대회와 유사한 코스타나 자마 대회가 있다”며 “두 대회는 정체성을 일깨우고 은혜 받는 대회라

라미스교회. 강사 폴 코디 전도사. 대회에 이어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열리는 지도자 컨퍼런스는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리트릿센터에서 서임중, 박희민, 김영길, 손병렬 목사를 강사로 열린다. 컨퍼런스 참석자는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준비위원장 양승호 목사는 “이번 컨퍼런스는 대회를 마치고 그 수익금으로 마련된 컨퍼런스에서 강사도 신중하게 했다”며 “컨퍼런스를 통해 참석자들이 재충전되기를 바라며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면 GKYM은 선교동원에 중점을 두며 현장 팔로업을 하는 선교대회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소개했다.

GKYM 2011은 2009년 대회에 비해 지역적 성격을 벗어나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적인 안목을 넓히고 그 정체성으로 선교사 헌신을 강화한다. 강사진도 목회자, 문화사역자, 평신도, 선교사 4개 부문에서 초청되며 주 강사로 로렌 커닝햄(CCC 총재), 존 비버레(‘순종’, ‘관계’ 저자), 밥 크레스(위클리프), 이희돈 장로(WTC 부총재), 찬양은 스타펠드, 소향, 선예 등이 초청된다. 이외에도 유명 강사들을 섭외 중에 있다.

동 대회는 18세 이상 청년과 대학생이 등록할 수 있으며 대회 참가 예상인원은 스텝을 포함 5천명이다. 프로그램은 선교를 주제로 한 다양한 세미나와 선택강좌, 선교체험 현장과 선교사 간증, 성경강해, 소그룹 모임, 저녁집회와 새벽기도회, 아침예배와 찬양, 선교단체 전시와 상담, 미전도 종족 소개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의 예산은 80만 달러. 하이라이트 등 일류호텔에서 좋은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며 등록비는 1차 10월 15일 마감 150달러, 2차 11월 15일 200달러, 3차 12월 15일 250달러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한편 본 대회에 앞서 9월 25일(뉴욕)과 10월 9일(캐나다)에 본 대회 참석 강사와 청년들을 초청하는 미니 대회를 갖는다. 후원 갈라 디너쇼를 11월 6일(한어권), 12월 3일(영어권)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551)486-0100로 하거나 웹사이트 gkymfest.org를 방문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할렐루야복음화대회 마지막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 제자 된다”

### 뉴욕리폼드신학교 2011 가을학기 개강예배

뉴욕리폼드신학교(NYRBS, 학장 유상열 박사) 2011 가을학기 개강예배가 지난 4일 저녁 본교에서 열렸다. 또 이날 강도사 인허,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도 있었다.

예배는 유상열 학장 인도로 기도 최후의 총무처장, 말씀 조국환 전임 학장, 헌금기도 최순이 전도사, 축도 강신용 이사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시애틀에서 본교 특강 차 참석한 조국환 박사는 이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본문으로 “기도 중에 부르심을 받았던, 사명완수를 위해 왔던, 주위의 권면으로 왔던 신학생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며 “본문의 핵심은 ‘자기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이는 세상적 욕적이 되던 요소를 버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사역의 능력인 은사를 개발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배 후 김수경 전도사의 강도사 인허와 최지도 목사의 명예목회학 박사학위 수여도 진행됐다. 예장(합동총신총) 미주동부노회(노회장 강신용 목사)로부터 인허를 받은 김수경 강도사는 The Second Life재단을 설립해 구제, 선교, 전도, 치유, 양육 등을 중심으로 사역을 펼쳐 나가며 현재 무지개교회에서도 사역하고 있다.

명예목회학박사학위를 받은 최지도 목사(뉴욕소망교회 담임)는 본교 해외학생처장으로 동북하 지역의 신학교를 통해 사역자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가을학기에도 약 35명이 입학하는 등 선교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는 목사님의 목회에 신바람을 드립니다.

목회가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설교가 고민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목회보다 더 신바람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www.kcdc.net의 문을 여십시오. 그럼 목사님의 목회가 확 바뀝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Korea Church Data Center : 대표 김항안 목사)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는 성장의 기쁨을, 목회자들에게는 신선한 영적 부흥같은 영감이 넘치는 복음적인 설교와 목회 아이디어를 드리는 바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1986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 kcdc 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 (예, 한 주간의 자료 내용)

- 주일 낮 대예배(영복한 예배)를 위한 예배자료 (예배의 부름기도, 찬양의 초대, 찬회기도, 묵회기도, 헌금기도, 위약의 말씀, 축도)
- 주일 낮 대예배(영복한 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5편(강해, 본문, 주석, 상황, 기타)
- 주일 낮 대예배 설교를 위한 예배 6~8편
- 주일 밤 예배(주 찬양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 수요 예배(주 만남 예배)를 위한 설교자료(주제별 설교: 믿음, 사랑, 기쁨, 전도 등)
- 금요 예배(금요축복기도회)를 위한 설교자료
- 새벽기도(영성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 주일 낮(영복한 예배) 예배를 위한 예배다워포인트 중점자료
- 교회력에 따른 오늘의 기도와 자유 명상(Today's Prayer Healing Q.) 자료

- 목회에 필요한 영적인 부흥같은 목회 아이디어(Program) 제공
- 매일 제공하는 4 주간의 자료 분량은 A4 사이즈 약 370매 정도의 분량임
- 한국교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모든 자료가 아니라 100% 집필위원(교수, 목회자)이 창작한 자료만을 제공합니다.

### 회원가입안내

1년 회비 \$60을 사용하시는 교회 수표로 보내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카드 결제 후 이메일(kcdc@chollian.net)이나, 전화(02-824-5004), 팩스(02-824-4231, 4232)로 알려 주시면 사용 아이디와 함께 자료 활용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 KKCDC설교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설교자료를 주제별, 본문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 KKCDC예화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예화자료를 주제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 영상목회자료**  
멀티미디어를 통한 영상목회 활성화를 위한 영상자료 개발 및 보급
- 부설(도서출판 글로리아)를 통한 출판지원**  
목사님들의 설교집, 논문집, 예회집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출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출간까지 도와드립니다.



홈페이지 - www.kcdc.net  
이 메 일 - kcdc@chollian.net

전화 - (02) 824-5004  
팩스 - (02) 824-4231-4232

서울 동작구 상도 1동 685



# “하나님 사랑으로 눈 뜨게 한다”

## VCS 멕시코 아이캠프를 위한 후원의 밤

국제실명구호단체 비전케어서비스(VCS, 이사장 알렉스장)는 VCS 멕시코 아이캠프(eye-camp)를 위한 후원의 밤을 8월 31일 오후 6시 월셔아트센터(구 엠팩4 극장)에서 VCS 서부지부 주최로 열었다.

이날 이창엽 이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력을 상실한 사람은 3억 명 이상으로 조사됐다. 또한 5초에 1 명이 실명하고 있다. VCS는 의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단체로 세계안과의료 소외 지역을 찾아

가 무료개안수술을 통해 잃어버린 시력을 되찾아주고, 함께 보는 밝은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창엽 이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김성민 목사(나성열린교회 담임)가 기도를, 알렉스장 이사장이 단체 및 이사소개를 했으며 엔 카르멘 트루타니치 LA 시 검사장 최용진 LA부총영사가 축사를 했다. 또한



VCS멕시코 아이캠프를 위한 후원의 밤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월셔연합감리교회 2011 가을부흥성회에서 조영진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 월셔연합감리교회 2011 가을부흥성회

####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조영진 담임목사 설교

월셔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는 2011 가을부흥성회를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라는 주제로 1일부터 4일까지 조영진 담임목사(전 워싱턴UMC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부흥성회는 총 6회 집회로 모였는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집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집회에서는 ‘은총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조 담임목사가 설교를 했다.

첫날 저녁집회에서 조 담임목사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요1:9-1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그는 “우리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많은 선택을 하며 살게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택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믿음은 가정과 나라의 역사를 바꿀 뿐만 아니라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한생명교회에서 알뜰장터가 열리고 있다

### “장터를 통한 복음전파”

#### 한생명교회 알뜰장터, 전도지 1천장 준비

한생명교회(담임 강남중 목사)는 한생명 알뜰장터를 8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본 교회 파킹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알뜰장터는

의류, 가방 등을 판매했다. 이번 행사를 담당한 이 교회 장철호 부목사는 “한 생명 알뜰장터의 가장 큰 목표는 장터를 통한 복음전

파”라며 “이를 위해 전도지를 1000 장 준비했으며 장터를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줬다”고 밝혔다.

트루타니치 검사장은 이날 무료 의료선교를 위해 세계를 다니며 봉사 활동을 하는 VCS 이사진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VCS는 현재 세계 23개국에서 인종, 종교, 국가를 초월해 무조건적인 인술을 펼쳐 지난 10년 동안 5만5천여 명의 외래진료, 8천회의 수술을 진행했다. 이 단체가 주관하는 아이캠프는 2002년부터 시작했으며 제 100회가 되는 VCS 멕시코 아이캠프를 오는 10월 2일부터 8일까지 멕시코 치아파스에서 열게 된다. 이번 캠프는 한국과 미주 전 지역에서 모인 2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박준호 기자)



나성열린문교회에서 열린 비전2011 영적대각성집회에서 최인근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 축복시대 열자!”

#### 나성열린문교회 비전2011영적대각성집회

나성열린문교회(담임 박헌성 목사)가 주최한 비전2011 영적대각성 집회가 “좋은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축복시대를 열자!”라는 주제로 2일부터 4일까지 최인근 목사(시애틀 빌립보 장로교회 담임)를 강사로 개최했다.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신다는 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진실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내 삶이 변화되는 체험을 하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열린찬양선교단의 찬양인도와 박헌성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첫날 저녁집회는 이호영 장로가 기도를, 본 교회 시운찬양대가 찬양을 했다. 이어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십니까?’(사 40:27-31)라는 제목으로 최인근 목사가 설교를 했다.

한편 최 목사는 둘째 날 새벽집회는 ‘기적을 만드는 신앙’(요2:1-11), 저녁집회는 ‘예수님이 해답입니다’(요21:1-17), 주일집회는 ‘뽕성할 수 있습니다’(눅5:1-11)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최 목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절망에 빠져

이런 행사는 자바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목자가 의류를 도네이션 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통해 모아진 수익금은 한생명교회가 지원하는 남미의 브라질과 파라과이 선교지에 전달된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West

### 남가주한인선교사대회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박효우 목사)는 피종진 목사를 초청, 남가주한인 선교대회를 16일(금)부터 18일(주)까지 풍성한교회(2911 Beverly Bl, LA, CA)에서 개최한다. 시간은 오후 7시30분. ▲문의: (213)422-9191

### 미주갈멜산 기도성회

갈멜산금식기도원(원장 조성근 목사)가 주최하는 미주갈멜산 기도성회가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미주지역에서 개최된다. 조성근 목사가 강사로 서는 본 집회는 3407 W. 6th St #800(로얄빌딩)에서 매일 오후 7시에 열린다. ▲문의: (213)514-0039

### 랄리제일한인침례교회 영어권 사역자 청빙

랄리제일한인침례교회가 영어권 사역자를 청빙한다. 영어사역에 소명이 있는 2세로 경배와 찬양예배에 대한 열정과 한국어 사용이 가능한 자로 정규신학대학을 졸업하고 5년 이상 영어 목회 경험이 있는 자를 선호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가족사진 목회 소견서이며 접수 마감일은 11월 31일까지. ▲문의: (919)870-9070

### 담임목사 청빙

휴스턴 예담장로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안수 후 목회경험이 5년 이상 된 자로 이중언어(한어 및 영어) 구사가 가능한 39세에서 49세 사이인 합법적으로 세금보고가 가능한 자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한글 및 영어) 각 1통, 목회비전 1통, 신앙고백서 1통, 신학교졸업증명서 사본 1통, 목회안수증명서 사본 1통, 본인 및 가족사진 각 1매, 추천서 1통, 최근설교 2편(동영상 파일)이며 9월 17일까지 보내면 된다. 제출처는 휴스턴 예담장로교회 청빙위원회이며 주소는 8381 Westview Dr. Houston, TX 77055 ▲문의: how2580@gmail.com

### SAM기드온 이전감사예배 및 특별세미나

샘 기드온이전감사 예배 및 특별 세미나가 13일(화) 오후 3시30분 린우드 샘기드온동족선교센터 새 컨퍼런스 룸(4710 168th St. SW., Suite 100 Lynnwood, WA 98037)에서 개최된다. 이전감사예배 말씀은 오대원 목사가 전하며 민영선 목사가 ‘통일 이후도 대비하는 동족선교’란 제목으로 특별 세미나를 인도하게 된다. ▲문의: (425)775-7477

### 2011 유학생 초청 전도집회

LA연합감리교회(담임 김세한 목사) 청년 예배공동체 WORD가 지역사회 내의 캠퍼스(대학생)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청년들을 전도하기 위한 전도 집회를 개최한다. 일시는 11일(주) 오후 1시 30분. ▲문의: (661)476-9726, (310)645-3698



## SAINT MISSION UNIVERSITY

###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 남가주한인목사회 주최

# 피종진목사 초청 남가주한인 선교대회

남가주한인목사회에서 피종진목사를 초청하여 다음과 같이 남가주한인선교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은혜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일 시 : 2011년 9월 16일(금)- 9월 18일(주일) 오후 7시 30분
- ◇ 장 소 : 풍성한교회 (박효우목사 사무) 213-503-3355  
29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57
- ◇ 문 의 : 총무 정요한목사 213-422-9191



## 남가주한인목사회



# 보수 장로교단 WCC 대책 빠른 행보

## 문제점 지적 책자 잇따라 발송

[미선라이프]장로교단 가을총회가 다가오면서 보수 교단들의 세계교회협의회(WCC) 대책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내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WCC 대책위원회(위원장 서기행 목사)는 30일 WCC는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란 책을 전국 총대, 교회, 주일 기관에 발송했다. 이 책은 기독교, 교회론 등 WCC의 실체를 비판하는 교단 산하 신학교 교수 12명의 논문을 실은 것이다. 서기행 목사는 논문집에 대해

“WCC 신앙노선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논문집을 통해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WCC가 신앙적·신학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장합동은 지난해 총회에서 WCC에 대해 △성경의 무오성을 부정하고 종교다원주의 신론을 유지하고 △교회 본연의 사명인 복음선포와 선교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2013년 WCC 부산총회에 대해서도 “부산

총회는 한국교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성도의 신앙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예장합동은 현재 WCC 신학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주일학교 구역공과도 집필중이다.

예장고신은 지난해 총회 결의에 따라 올해 초 WCC 신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종교다원주의 신론을 배포했다. 예장고신 역시 WCC가 신학적으로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WCC에 참여하거나 부산총회에 협력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이다. 예장고신 WCC 대책위원회 정근두 위원장은 “WCC는 그동안 종교다원주의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하지만 WCC 부산총회 불참이 또 다른 한국 교회 분열로 비쳐질 수 있기에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장합신 총회는 최근 신학연구위원회(위원장 박병식 목사) 결의를 통해 “WCC 부산총회가 마치 온 세계교회 전체 모임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안 될 것”이라며 “부산총회는 오히려 왜곡된 복음과 왜곡된 기독교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WCC는 성경의 영감과 무오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교다원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예장합신의 시각이다.

## 소강석 목사 미 해외참전용사협 금훈장 수상

소강석(사진) 새에덴교회 목사가 31일 미국 해외참전용사협회(VVVF)로부터 금훈장을 수상했다.



2007년부터 5회째 참전용사를 초청해 위로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VVVF의 금훈장은 각국 재향군인회장 등 군 출신들에게 주어진다. 소

목사의 수상은 민간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서도 최초라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소 목사는 미국 현지에서 열린 수상식에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넘어 세계평화와 안보를 위해 희생했다”며 “이 같은 희생정신이 있는 한 미국은 앞으로 세계를 주도하고 이끌어 가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 목사는 또 “한국과 미국은 영적 동맹의 끈을 더 굳건하게 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 대학생 해외선교 참여 저하

### 기독교 선교단체, 사기저하로 고심

[미선라이프] 청년층과 대학생의 해외 선교 참여가 해를 거듭할수록 줄고 있어 한국교회 선교사 파송에 타격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선교계에 따르면 최근 젊은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 동원이 과거와는 확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열린 ‘사하리선교축제’와 ‘미선차이나대회’ 등에서 젊은층 참여는 예년보다 저조했다. 2년마다 열리는 선교한국대회 역시 1996년 6300명을 정점으로 그동안 5000명 선을 유지하다 2008년 5070명, 2010년은 3975명으로 떨어졌다. 선교한국대회는 청년대학생을 위한 선교대회다.

선교사 지망생도 과거보다 연령대가 높아졌다. 한국OMF선교회 동원 담당 손창남 선교사는 “요즘 20대에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주로 30대 후반에서 40, 50대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손 선교사는 “선교사 지망생들의 ‘고령화’는 현재 국내 선교단체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이라고 했다.

선교한국 파트너스위원회(한철호 상임위원장)가 운영하는 기본 선교훈련 ‘퍼스펙티브스’에도 10년 전만 해도 참가자 95%가 대학생이었지만 지금은 30대 직장인과 40~50대 장년층이 절반을 차지한다. 젊은 층의 선교 관심 저조는 한국교회 전체 선교사 파송과도 연결된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밝힌 파

송 선교사(이중소속 포함) 통계에 따르면 2006년 1만 6616명, 2007년 1만 8625명, 2008년 2만 503명, 2009년 2만 1735명, 2010년 2만 2685명이었다. 증감 추이는 2530명→2009명→1878명→1232명→950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선교 동원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 우선 젊은층 자체의 변화다. 한철호 상임위원장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교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소소한 개인적 관심이 커지면서 선교에 헌신하는 마음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둘째는 선교 참여 기회가 다양화됐다. 과거엔 선교대회나 선교단체를 통해서만 선교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개 교회별로 선교 훈련 과정이 생겼고 해외 단기선교도 많이 떠난다. 굳이 선교대회에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와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셋째는 세계 선교 환경의 변화다. 교회개혁 사역 위주의 목사 선교사보다 직업을 가진 전문인 선교사가 더 많이 필요해지면서 40대 이상의 평신도들이 주목받게 됐다.

선교한국대회조직위원회 이대행 상임위원장은 “젊은이들 사이에 선교 관심과 열정이 식었다고 비판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다”며 “그러나 선교 훈련이나 기회가 많아졌음에도 선교사 지망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국민일보-여의도순복음교회-가족

### 고소·고발 취하 등 갈등 해결 선언

국민일보 경영권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 온 국민일보·여의도순복음교회·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측 등 3자가 6일 대화합을 선언하고 국민일보와 한국기독교 발전을 위해 헌신키로 했다.

조용기 국민일보 회장(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은 최근 조희준 전 회장 등 가족들로부터 국민일보 경영에 일절 간여하지 않고, 그동안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이날 국민일보 확대간부회의에서 밝혔다.

조희준 전 회장 측의 이 같은 국민일보 경영 불간섭 약속에 따라 국민일보는 조희준 전 회장 측과 상호 합의해 취하키로 했으며, 앞으로 어떤 외부의 간섭도 받지 않지 않고 사명·진실·인간의 사시(社是)에 부합하는 신문 제작에 전념키로 했다.

## 기독교 활동, 교계는 찬반 논란 중

### 전광훈 목사 기독교자유민주당 창당 공식화

[미선라이프] 전광훈(기독교영성훈련원 원장) 목사 등이 최근 ‘기독교자유민주당’ 창당을 공식화한 가운데 교계 내에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신앙적 입장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교계 보수·진보 간에도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역주(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목사는 창당에 긍정적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기독교정당에 대한 비판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기독교정당 창당이 아닌 2008년 창당한 기독교사랑실천당 당명을 변경하는 것이고, 목사가 정당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교회 내 평신도들이 참여하는 것이라 설명이

다. 이 목사는 “개인적으로는 당을 안 만들면 좋겠지만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며 “기독교정당 그 자체는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아니다. 일단 의회에 진출한 뒤 활동을 보고 기독교정당의 실패인지 성공인지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래목회포럼(대표 김인환 목사)은 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기독교정당의 출현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럼은 “무분별한 기독교 정당 출현 및 기독교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세력화는 기독교와 정치 모두에게 위협적인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한국교

회는 사회의 주류종교이고 다수인데 기독교정당 창당은 우리 스스로 소수의 세력으로 전락하려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포럼은 2004년, 2008년 총선 때 있었던 기독교 정당 활동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의 정당 출현은 이미 통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며 “교회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안티기독교세력의 공격 빌미만 만들어주었다”고 꼬집었다. 포럼은 또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국 교회 목회자와 교회가 스스로 갱신되고 교회를 개혁하도록 개혁하는 것”이라며 “한국교회 전체가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가 자기를 부정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 찬송가공회 가처분 소송 등 맞서 반발 성명

(재)한국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 이광선·서정배 목사)는 1일 서울 장충동 엠베서더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세력의 음해와 중상모략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한국찬송가위원회(위원장 이보철 목사)와 새찬송가위원회(위원장 김삼봉 목사) 소속 위원들이

한국찬송가공회 복원과 (재)한국찬송가공회에 대해 찬송가 출판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결의한 데 대한 공식 반응이다.

(재)한국찬송가공회 총무 박노원 목사는 “최근 일부 단체에서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허위로 인용해 공회에 찬송가 저작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공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네 번의 법원 판결을 통해 21세기찬송가에 대한 공회의 저작권 보유를 확인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최근 ‘(재)한국찬송가공회에 21세기찬송가 저작권이 없다’는 최근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서도 “서울고법이 판단한 사항은 21세기찬송가에 수록된 총 645곡의 개별 찬송가 중 황철의 등 5인의 작곡가가 작곡한 10여곡의 개별 찬송가들에 대한 내용 일 뿐”이라며 “이 사건은 21세기찬송가 전체의 편집저작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21세기찬송가의 저작권, 출판권에는 영향을 없다”고 설명했다. 박 목사는 그러면서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승소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 세계성령부흥강사단 대표회장 이은대 목사

### 제3차 총회, 일백성회 개최목표 한국교회 성령부흥운동 주도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대표회장 오범열 목사) 세계성령부흥강사단은 지난 2일 이화동 세계성령중앙협의회 회관에서 제3차 총회를 열어 회장단 및 임원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은대 목사(송주그리스도의교회 담임)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하고 이영희 목사(햇빛교회 담임)를 상임회장으로 임명했다.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은대 목사는 사)세계성령중앙협의회 21대 명예대표회장을 역임하고 국내외 수백회의 부흥회를 인도하며 성령부흥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송주그리스도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세계성령부흥사연수원의 졸업 동문들로 조직된 세계성령부흥강사단은 “성령받아 전도하자! 능력받아 부흥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오산리기도원 성령성회, 감탄산기도원 성령성회, 개교회 성령성회 등 일백회 부흥성회를 개최하여 한국교회의

새로운 성령부흥운동을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려는 포부를 가지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 후임

### 이규현 목사 10월 12일 취임예배

[미선라이프]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70) 목사 후임에 이규현(55·호주 시드니 새순장로교회·사진)목사가 취임한다. 수영로교회는 10월 12일 오후 7시 수요일에



대예배를 드린다고 2일 밝혔다.

한편, 이목사는 지난 달 28일 호주 시드니교회에서 이임예배를 드리고 호주 교회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보냈다. 교회측은 이 목사에게 감사패와 꽃을 전달했으며 이목사와 가족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목사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풀러신학교 D.Min 과정을 수료한 뒤 국제 OM 오세아니아선교회 이사장 등으로 일했다. 1985~91년 부산 수영로교회 부목사로 근무했다.

**뉴욕코탕**  
New York Kom Tang

24시간 오픈

교포사회회 등대 주일은 쉽니다

연하: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647-8482  
뉴저지: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0 Tel: 201-346-3201

**다이나믹스**

교회 행사에 필요한 주문 제작 티셔츠, 배너 등을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 Towel  
앞면 Two color 토고 프린트 T-shirt 50벌 이상 \$5.00  
광고대리 제작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 Towel  
대건도, 견도 및 각종 무술장비

Tel 516-354-8484, Fax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dynamictowel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를 지향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폰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제공하는 전체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 수 있으며 미주내 등록된 교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신문보내기 후원을 통해 귀한 선교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 및 구성**  
**전체뉴스, 칼럼, 교회검색**

아이폰이나 아이팟터치를 이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Yoo 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8-8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www.sbm.or.kr

크리스천이 어떤 삶이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SBM이 최면을 세심합니다.

500명의 전문가

1. 영혼의 신앙력 From Oubour to Faith  
2. 신앙의 생활력 From Faith to Revived Life  
3. 생활의 영연성 From Revived Life to Culture World

시흥점: 22504-3191, Fax: 022504-8933  
E-mail: sam01@ezmail.com

《물결》미주크리스천 다매체포도

**빛과 사랑**  
Light & Love  
합평인 편집진

51 West Overlook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883-1142

135-20 38th Ave. suite 9A  
Flushing, NY 11354  
lightlovely@yahoo.com



# 불기둥



김홍도 목사 (금관교회 목사)

북한의 김정일은 남한을 다 공산화된 것으로 간주하고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조금만 더 참으면 남한의 모든 양식과 재산이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한의 현역군인인 대령, 중령, 소령으로부터 시작하여 70여 명이 김정일, 김정은 부자에게 목숨 바쳐 충성하겠다고 맹세한 일이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민노당, 민주당의 대선주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한나라당의 최고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후보까지도 김정일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대화가 잘되는 사람이라는 등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으니 북경에서 보내온 고려항공을 타고 평양에 가서 2박3일 동안 무엇을 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왔기에 비판의 소리는 하나 없이 김정일을 칭찬하는 것입니까? 김정일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무장한 특수부대를 청와대로 보냈던 자이고 전두환 대통령과 정부요인들을 암살하려고 버마 아웅산 폭탄 테러를 감행한 사람이 아닙니까? 또한, KAL기를 폭파하여 무죄한 사람들을 150여 명 이상을 죽이려고 김현희를 과전했던 자가 아닙니까? 또한 신상옥 최은희 부부를 납치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김정일은 휴전협정을 2만몇천 번 어겼고 최근에는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을 가한 사람인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적화통일은 불을 보듯 뻤한 것 아닙니까? 민주당, 민노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더 위험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이라고 해서 믿어주었는데 6.15선언을 반대하는 사람은 두 사람(정몽준, 심재철 의원)밖에 없고(공식으로 표명) 좌파정권을 종식시키고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공산당을 처벌하고 강경대북정책을 펴달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는데 취임식부터 실용주의(pragmatism)를 표방하며 우파와 좌파도 다 좋다고 하여 국민을 실망시켰고 중도좌파로 기울어지고 있으니 대통령에 대한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좌파정권 때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김정일이 큰소리칠만합니다. 더욱이 아태문제연구소 상임이사의 말에 의하면 50년 동안 납치된 사람들을 파은 것이 서울을 지나 수원, 부산까지 내려와 있고 남침 특수부대요원 20만 명이 남한 군복 30만 벌과 민간인복을 준비하고 명령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주요 군부대와 방송국들을 일시에 점령 중요한 정부기관을 점령하려

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일, 김정은은 해무기보다 납치 땅굴을 더 믿고 있다고 합니다.

1. 차기에는 반공사상과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정당과 국회의원,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북한노동당의 2중대는 민노당이고 민노당의 2중대는 민주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기에는 반공사상이 투철한 당을 만들고 지지해야 하고 반공사상이 투철한 사람을 국회에 보내야 하고 무엇보다 반공사상, 국가관이 투철하

야8:44)라고 하신 말씀대로 공산주의자, 종북주의자들은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므로 사실적인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산지하에서 사는 것보다 아프리카 흑인들의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차기에는 친공, 즉 종북(從北)주의자들은 국회의원이거나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③공산화 통일이 되면 북한과 같이 거지의 나라가 되어 영양실조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10여 년 전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라고

자고 할 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트루먼은 “우리는 한국에 머물 것이고 싸울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도와주면 좋습니다.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든 싸울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버리면 한국인들은 모두 살해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편에 서서 용감히 싸웠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친구를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애틀리총리가 중국시장을 놓치지 싫어서 한국을 포기하라고 권면할 때도 트루먼은 “우리는 한국에 머물 것이고 싸울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버리면 한국인들은 모두 살해됩니다... 우리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친구를 버리지 않습니다.”하고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의 정직하고 우직한 심성 때문에 한국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②맥아더장군은 서해바다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하고 군함이 바닥에 걸리면 침몰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작전이지만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적의 허리를 끊었기 때문에 결국 공산군을 몰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③벤 프리드장군은 그의 아들이 북한으로 출격했다가 실종된 아들(공군 조종사)을 찾으려고 수색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담담한 표정으로 중지를시켰습니다.

④미8군사령관이었던 워커(Walker)장군은 의정부 미군부대를 방문하러 빙판길을 달려가는

데 뒤에서 오는 군인트럭운전사가 얼음판을 과속으로 달리다가 앞에 가는 워커 장군의 지프(jeep)를 들이받아 워커 장군은 사망했고(Walker Hill 호텔), 운전병을 이 승만 대통령이 사형을 명령했으나 미국의 고문관 짐 하우스만대위가 극구 말려서 3년 징역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⑤리치웨이중장은 중공군이 참전해 수원까지 내려왔을 때 대만 격 작전을 펴서 오늘의 휴전선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국출신을 통보받자마자 준비된 점검목록에 따라 짐을 꾸리고 유언장을 작성해 유산분배를 결정하고 전선으로 가져갈 사진을 처자식들과 함께 찍고 한국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⑥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한 해밀턴 쇼(William Hamilton Show)대위, 그는 1922년 선교사 윌리엄 얼 쇼와 어머니 에들린 쇼 여사 사이에서 평양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던 중 2차세계대전 때 군복무를 다 마치고 해군장교로 다시 입대해 한국전에 참전하려고 할 때, 그 부모님이 극구 말려서 망설이던 중에 요15: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을 읽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 지

금 한국이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만일 내가 그들을 돕지 못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선교사로 간다면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하고 해군대위로 입대해 맥아더 장군의 통역장교로 인천상륙작전을 도왔고 서울수복작전 전 두 중 1950년 9월 22일 29세의 꽃다운 청춘에 아내와 아들을 두고 전사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⑦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할 때 주한미군 총사령관 베시(Vassy)장군과 싱글러브(Singlove)소장은 강력히 반대하면서 미국 TV에 나가서 70분(원래는 15분)이나 반대해서 미군철수계획이 취소됐으나 두 장군은 더 진급을 하지 못하고 옷을 벗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6·25 전쟁으로 54,660명이 전사했고 약 20만 명이 피 흘리고 부상당해 지금 미국 원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져가고 있습니다. 전사자 54,600명 중 거의가 미국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공산주의에 물든 종북 좌파들은 미군을 주적이라고 하며 반미운동을 계속하고 있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은 우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놓고 이제 우리는 싸우지 않을 것이니 미군은 물러가라고 외치다가 미군철수 즉시 납치를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행

## 한국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 에스더 4장 12-17절

하지만 최근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최소한 5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노동자협약소에서 한 노동자가 동료들을 죽여서 잡아먹고 나머지는 양고기 시장에 팔려다가 잡혔다”라는 기사가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2. 친미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종북(從北)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반미(反美)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이국 부(異國 夫) 이슬만을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6·25전쟁 때 거의 부산까지 밀고 내려가 적화통일을 눈앞에 다가가 있을 때 미군이 들어와 인민군과 중공군을 격퇴했고 그들을 불러들인 사람이 이승만 박사이기 때문입니다. 종북 반미 좌파들은 그들에게 감사하기는커녕 미국을 주적(主敵)으로 생각하고 국부(國父) 이승만을 철천지원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친미가 반공이고 반미가 친공인 것입니다.

①트루먼 대통령은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공산군이 남침했다가 전화를 받고 단 10초 동안에 “그 개자식들(son of bitch)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내야 한다”라고 외치며 미군과 UN군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중공군이 내려와 전체가 불리할 때 맥아더장군과 매튜 애치슨국무장관이 한국을 포기하

데 뒤에서 오는 군인트럭운전사가 얼음판을 과속으로 달리다가 앞에 가는 워커 장군의 지프(jeep)를 들이받아 워커 장군은 사망했고(Walker Hill 호텔), 운전병을 이 승만 대통령이 사형을 명령했으나 미국의 고문관 짐 하우스만대위가 극구 말려서 3년 징역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⑤리치웨이중장은 중공군이 참전해 수원까지 내려왔을 때 대만 격 작전을 펴서 오늘의 휴전선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국출신을 통보받자마자 준비된 점검목록에 따라 짐을 꾸리고 유언장을 작성해 유산분배를 결정하고 전선으로 가져갈 사진을 처자식들과 함께 찍고 한국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⑥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한 해밀턴 쇼(William Hamilton Show)대위, 그는 1922년 선교사 윌리엄 얼 쇼와 어머니 에들린 쇼 여사 사이에서 평양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던 중 2차세계대전 때 군복무를 다 마치고 해군장교로 다시 입대해 한국전에 참전하려고 할 때, 그 부모님이 극구 말려서 망설이던 중에 요15: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을 읽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 지

히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연합사를 2015년까지 연장했지만 그 후는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남침 땅굴이 휴전선을 넘어 부산까지 내려와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증원군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남한 전역을 점령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유산 기지에 주둔한 미군 7,000명 중 약 1,000명과 그 가족이 머물 수 있도록 81만 평의 30%인 28만 평의 땅만 제공해 달라고 하는데 17만 평만 주겠다고 해서 11만 평 때문에 한미연합사와 나아가 사령부가 서울을 떠나야 한다고 하니 종북 좌파들의 세력이 그렇게 막강한가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산기지 땅을 서울시민의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데, 안보가 위태로운데 미군이 수도권에 주둔하는 것과 평택 오산에 주둔하는 것과는 안보상태가 달라집니다. 차기에는 반공친미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국회에도 들어가고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반공보수당이 창당돼야 좌편향된 한나라당 가지고는 안 됩니다.

3. 성도들의 믿음과 목숨을 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①말세에 선교의 사명을 맡기신 영적 사명을 받은 영적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시

는 사명을 받은 영적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시

②해무기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삼상17:47에 “또 여호와와 구원 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했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도 않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사54:16-17에 “숯불을 붙여서 자기가 쓸 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를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와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와 달리리라”고 했습니다. 핵무기나 대량살상 무기를 아무리 만들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무기를 만든 사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6자회담을 백번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생명줄이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③목숨을 건 기도가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바사 나라의 온 유대민족이 하루아침에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으니 에4:13-14에 “모르드개가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라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 집은 멸망하리라” 할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구원해주셨습니다. 겔22:30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로대로 그 머리에 보았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할 기도가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GRAND OPENING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다양한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피티 꽃  
축하 꽃다발 / 정예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8-1077 / (213)254-7003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초혼, 재혼  
YOUNG KIM  
213.514.2004

youngkim720@hanmail.net  
648S. Gramercy Dr #106 L.A., CA 90005

한국 핸드폰 빌려주세요 702.812.4770 Kim Wray

는, 모, 귀, 알이 떨어져 갈수록 손에는 전기가 흐르니 민심에  
일대도 3.00 a day \$ 21.00/wk  
39¢ 공짜!  
3개월 인건금의 50%ส่วนลด  
고급 핸드폰 제공  
장기 - 스킴십 할인  
미국 어디나 무료 배송

생명의 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국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책화점  
2207 W.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08 www.lifebook.co.kr  
TEL: 323.928.4228 Fax: 323.928.2104 Email: wordoflife@earthlink.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E-mail: reformeduniversity@yahoo.com  
TEL (213)736-6500 FAX (213)735-6504



# 2011 아리바 호베네스 마라톤 복음축제

## 파라과이 제2도시 Del Este부터 수도 Asuncion까지 327km

지난 8월 1일부터 6일까지, 파라과이 제 2도시 Del Este 시부터 수도 Asuncion까지 327km를 이어 달렸던 마라톤 국토 횡단 복음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건강한 청년, 강한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파라과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단11:32)이 일어나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었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사60:22)는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파라과이 경찰, 시와 정부부를 비롯하여 개신교회, 소방관, 매스미디어, 한인교회 및 교포들, NGO 단체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졌고, 각 도시마다 수많은 청년과 학생들이 마라톤에 참여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햇볕, 성경, 파라과이 국기를 손에 들고 327km를 함께 달렸고 빗속을 뚫고 타오르는 태양 아래서 숨을 헐떡거리며 때로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붙잡고 터질 것 같은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달리고 또 달렸다.

6일 간의 대장정은 산드라 Del Este 시장과 지역 TV방송국 기자들과 함께 우중 개막식을 가지며 시작되었다. 비로 인해 땅은 질척거리고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추운 날씨 속에서 Campo 9시까지 110km를 이어 달려야 했던 마라톤 첫째 날, 청년들은 먼저 달리는 주자들이 지치면 다른 주자들이 교체해 가며 모든 구간을 완주했다. 마라톤주자들이 Campo 9시에 도착하자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이 차량과 오토바이를 동원하여 환영하였고 시청 앞에 모여 함성을 지르며 "건강한 청년, 강한 나라"를 외치고 또 외쳤다.

8월 2일, 마라톤 복음축제 첫째 날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Campo 9 도시에서 Caaguazú 도시까지 36km 마라톤이 시작되었다. 30명의 청년들이 첫 주자로 달리기 시작하였고 흐리고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1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길거리 응원에 나섰고 시민들도 마라톤주자들이 지난 때마다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오후 3시, Caaguazú에서는 1시간반전부터 이들을 기다렸던 아이들과 주민들이 마라톤 주자들을 맞이하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가사의 찬양을 함께 부르며 최종 도착지인 자유의 광장까지 행진하였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모두 축제에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 휴교령을 내리며 이 축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다. 자유의 광장에서는 미용, 의료, 어린이 사역 등을 진행하였고 주민등록청에서 주민들의 민원 업무를 도왔고, 도로 경찰들은 어린이들에게 안전교육을 하였다.

8월 3일, 맑은 하늘 아래 산들 바람이 불어오는 최상의 날씨를 맞이한 이른 아침. Caaguazú 시장 Alejo Ríos Medina는 마라톤을 함께 뛰며 60여 명의 마라톤주자들을 격려했다. Coronel Oviedo 도시까지 총 46km구간은 유난히 구불구불하고 언덕이 많은 코스여서 마라톤주자들의 안전에 더욱 주의해야 했다. 도로경찰과 소방관들의 지속적인 협조가 큰 도움이 되었고 시청에서는 마라톤 대열과 동행할 수 있도록 큰 대형 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Coronel Oviedo를 7km 앞두고 45명의 청소년들이 마라톤에 합류하였고 도시 중앙광장에 이르렀을 때는 달려왔던 마라톤주자들이 지역 청년들에게 햇볕, 성경, 파라과이 국기를 전해 주었다. 이를 보던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를 보냈고 청년들이 하나가 되는 감동적인

기도를 하였다. 한 걸음, 한 걸음, 파라과이 땅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는 청년들의 모습이였다.

8월 6일, San Lorenzo에 45명의 마라톤 주자들과 새벽 3시에 버스를 타고 달려 온 Campo 9 도시 및 Piribubey시 청년들도 마라톤 대열에 합류했다. Asuncion 아메리카 광장에서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100여명의 Asuncion 청년들 및 한인 청년들, 태권도 팀 멤버들이 마라톤에 동참했다. 각 나라의 국기를 들고 탭버린을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 오후 4시30분, 드디어 Lambare 시 최종목적지에 도착한 순간, 청년들은 열차 안고 무릎을 꿇은 채 울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마치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40km의 마라톤 광야를 단숨에 달려간 '필리피네스'처럼 그들은 혼신을 다해 달려고 주님 품에 쓰러져 기도하였다.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327km를 함께 달려왔기에 그들의 눈물은 더욱더 뜨거웠다.

마라톤 국토 대장정을 마친 기쁨과 감격은 저녁 복음축제에 이어졌다. 바디워싱, 파라과이 전통 춤, 태권도 시범 및 파라과이 CCM 그룹의 찬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또한 지난 6일 동안의 마라톤 국토 대장정을 영상으로 담은 비디오가 상영된 뒤 Del Este, Campo 9, Caaguazú 도시에서부터 함께 마라톤을 뛰었던 5명의 청년들이 소개되었다. 청년들은 마라톤을 뛰면서 파라과이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햇볕, 성경, 파라과이 국기를 들고 국토를 횡단하면서 도시들을 축복하며 파라과이에 진정한 부흥이 오기를 기도하였다. 이들과 함께 "건강한 청년, 강한 나라"의 비전을 선포한 양창근 선교사는 청년들에게 "누가 당신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누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까?" 등 30개의 질문을 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함께 외쳤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사40:31)는 말씀이 임하였던 6일 동안 "Arriba Jovenes, Arriba Paraguay"가 Lambare 시를 넘어 파라과이 중심부에서 외쳐졌고 강한 신체와 정신과 영혼으로 무장되어 진정으로 건강한 청년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확신했던 시간들이었다. 오로지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온 힘을 다해 달려온 청년들의 열정이 잠들어 있던 파라과이 땅을 깨워 이 땅의 청년들이 창공에서 땅 위를 내려다보는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르기를 진심으로 기도 드린다.

양창근선교사



순간이었다.

8월 4일 이날은 Coronel Oviedo에서 Ypacarai 도시까지 100km를 달려야 하는 날이었다. 큰 고개들이 끝없이 이어져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도 쉽지 않은 구간이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살을 받으며 달리기 시작하자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때쯤 선두로 뛰고 있던 3명의 청년들이 지치기 시작했다. 그때 100m 앞에서 Piribubey지역의 Rufino Gray 목사님과 교회 청년들이 아리바 파라과이 티셔츠를 입고 춤을 추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목적지를 20km 앞두고 또 다른 지원군인 Ypacarai 도시 청년들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Juan Espinol(28세)이라는 청년은 지체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마라톤 복음축제 소식을 듣고 휠체어를 타고 서라도 달리고 싶을 마음으로 마라톤 대열을 기다리고 있었다. 긴 여정을 지나 마라톤 주자들은 함성을 지르며 Centro Evento Municipal광장에 도착하였다.

8월 5일, 맑고 청명한 날씨 속에서 100여명의 청년, 청소년들과 함께 Ypacarai에서 San Lorenzo도시까지 25km 거리를 달렸다. 이미 이날까지 291km를 달려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을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마라톤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었던 청년들은 San Lorenzo 도시 입구에 도착하여 돌길을 달리면서도 힘차게 찬양을 부르며 두 손 들어 도시를 축복하는

# 전/강/칼/럼 (9)



이수일 전도사 (레크레이션 치료/정신건강 상담가)

## “말로 인한 피해(대화 기술)”

언어 즉, 말과 글은 우리의 의사를 소통하게 하는 고마운 문화의 유산이다.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게 하고 또 남들의 생각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래서 언어는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 인해 적잖은 피해를 경험하곤 한다. 말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또 남의 말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말을 잘못 전달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자주 본다. 이로 인해 불신이 조장되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관계의 단절도 일어난다. 따라서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하고 잘 듣고 잘 이해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혀를 조심하기를 가르친다.

“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언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등의 표현은 주위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대화의 한 부분이다. 이 이야기를 했다 안했다고 하면서 서로가 반박하는 대화내용이다. 처음 한 이야기 내용이 변질 혹은 왜곡된 때문이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된 것처럼 보였는데 말이다. 물론 때로는 나쁜 의도로 말을 전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한다. 혼란과 불신이 일기 시작한다.

생각보다는 우리의 기억력과 이해력이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 물론 개인차도 있다. 게다가 이야기의 내용이 듣는 사람에게 따라 약간 혹은 상당히 달리 이해되어진다고도 한다. 혹은 사람들이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리라 믿지 않는 것이다. 또 이야기의 전달 과정에서 전달자의 이해와 해석만큼 본래의 내용이 변질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생각을 조리있게 표현하고 잘 듣고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하게 느껴진다.

이야기 내용을 전달하는 재미있는 '단체 심리 게임'을 하다 보면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첫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전달한 이야기 내용이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아주 엉뚱한 이야기로 바뀌어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이해 및 해석의 정도에 따라 달리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필자는 말실수에 따른 말조심과 관련해 “말을 아예 하지 말자”는 소극적인 입장보다는 노력하여 “슬기롭게 말을 하자”는 입장이다.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포기할 정도로 말을 억제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대화기술의 향상으로 생각이나 발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자세

를 주장한다. 그것이 언어가 존재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생각이 신중하고 질서있게 표현되고 그리고 서로가 잘 이해되어지면 말로 비롯되는 갈등이 줄어들 것 같다. 특히 들은 이야기를 전달할 때에는 더욱 그렇게 여겨진다. 나의 이해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마음의 자세도 필요한 것 같다. 실수가 발견되면,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사과로 여파를 줄이려는 태도도 필요하다. 이러한 용기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태도에서 출발되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가끔씩 “누가 어떻게 이야기했다”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해석임을 강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잘 표현하며 듣고 이해하는 습성을 기르게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실제 이곳 학교에서는 어려서부터 읽기와 쓰기, 말하기, 듣기 등으로 이러한 교육을 받는다. 필자의 아이가 2학년 때에 사실(Fact)과 견해(Opinion)의 구분에 관해 배우는 것을 보았다. 객관적인 사고와 주관적인 사고의 구분을 혼란시키는 것이었다. 자기의 생각인지 남의 생각인지를 구분하는 훈련도 있었다. 남의 말을 인용할 때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그리고 어느 책에서 인용했는지를 정확하게 하는 훈련도 있었다.

평상시에 어린 자녀들에게 들은 이야기 내용을 역으로 이야기를 해보게 하는 것도 유익하다. 알았다고는 하지만 쉽게 자기의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끔씩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자녀들의 이해를 높일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사고 조직의 능력을 길러 주는 좋은 기회들이 되리라 믿어진다.

물론 필자도 자주 대화중이나 대화 끝에 이야기한 내용을 듣는 이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물어본다. 그런데 가끔 특히 타민족으로부터, “이해했다고 생각드는데!”(I think I understand you!)라는 표현을 듣는다. 그 때에는 적절한 예를 들며 추가로 설명한다. 더 정확하게 의도하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생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짐을 느낀다. 힘들지만 말의 정확한 표현과 이해가 요구되어진다. 우리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 언어의 고마움이 더해질 것 같다. 좋은 대인관계와 생활의 즐거움으로 자존감도 향상될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아름다운 교회공동체,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 같다.

###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매경 /주석/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마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전집류가 상호 긴밀한 연관하여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 할렐루야백화점

개역 개정 성경과 새 찬송가로 바꾸시렵니까? 교회 단체 구입시 한국 특가세일합니다.

아직도 바꾸지 않으셨나요?

보급처  
성서보급회  
(할렐루야백화점부설)

### 멀티프로젝터

| Product                 | LIST       | HM PRICE   |
|-------------------------|------------|------------|
| 2300 ANSI LUMENS 2000:1 | \$1,095.00 | \$699.99   |
| 2600 ANSI LUMENS 2200:1 | \$1,295.00 | \$899.99   |
| 3000 ANSI LUMENS 2000:1 | \$1,795.00 | \$1,199.99 |
| 3300 ANSI LUMENS 600:1  | \$3,195.00 | \$2,399.99 |
| 5200 ANSI LUMENS 1200:1 | \$6,995.00 | \$5,299.00 |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English Bible, Christian Book, 여름성경학교 수건, 컵, 쟁반, 펜등의 교회판촉물 전문업체

### 미중등부까지 워낙! 특별세일

엘리크리стал  
에이치스수정광대창  
EHA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할 땐  
임대용 펠더까지 특별  
이벤트

최저가격 보장  
최고품질 보증  
최저가격 보증  
최고품질 보증

###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중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감감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프로젝터 사프  
2600 ANSI LUMENS  
밝기 2200:1

최저의 가격으로 최상의 효과  
DLP-XGA 특가 \$835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 목사님가운 성가대가운

목사님, 박사, 졸업가운, 성가대  
연금위원, 드레스, 생강양복

### 엘리크리стал

에이치스수정광대창  
EHA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할 땐  
임대용 펠더까지 특별  
이벤트

최저가격 보장  
최고품질 보증  
최저가격 보증  
최고품질 보증

### 주문처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 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몰  
www.gospelmall.com

NY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 (718) 762-0011 / Fax. (718) 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888, 888, 888  
213/447-4011

성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카운, 달력, 다이어리



# 크리스천의 영성은 훈련되어지는 것!

## 국제제자훈련원, 달라스 윌러드의 하나님과의 관계정립을 위한 영성훈련법 소개

많은 교회들이 7, 8월 동안 훈련 사역의 방향을 맞이하고, 단기 선교나 수련회 등 교회의 역량을 외부에 쏟아 붓게 된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항상 선교나 봉사를 하면서도 영성이나 신앙훈련에서 등한시 했던 영역이 있다면 이 기간 동안 점검하고 보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특히 영성훈련 곧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생명이 있는 활동이다. 이 활동들을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능력과 더욱 깊이 관계할 수 있도록 무장시킨다면 무더운 여름날의 땀방울이 향기가 되어 우리를 더욱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게 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11:29-30).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걷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며 지게 되는 예수님의 계명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혹은 마땅히 가져야 할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거나, 부담스럽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는가?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진정 기쁜

의 글러브와 배트를 산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스타와 똑같이 성공을 하지는 않는다. 무엇에 차이가 있는가? 그 선수의 평소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를 할 때 탁월한 능력과 날렵하고 세련된 묘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적절한 식사 조절, 적당한 휴식 그리고 특수한 근육 훈련 등은 경기의 일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이 없이는 탁월한 선수가 되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때도 피할 수 없는 진

을 홀로 외롭게 보내셨고, 때로는 다음 날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기도 하셨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가르침과 치유를 통해 봉사하는 공사를 능히 감당하실 수 있었다.

쉬운 멍에의 비결은 주님이 평생 동안 사신 것처럼 사는데 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전체적인 삶의 방식은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시간 및 정신과 육체의 에너지를 주님이 하신 것처럼 투자하는 방법을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데 있다. 어떤 영역에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내하고 수고하면서도 어떤 삶의 영역에서는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달라스 윌러드 교수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신령한 삶을 위한 훈련들은 바로 예수께서 자신이 깊이

## 경건생활 위한 훈련: 고독, 침묵, 금식, 기도, 봉사, 찬양 등 예수님의 전반적 삶의 방식을 내 것으로 따라야

마음으로 따른다면 우리는 훨씬 더 고상한 존재가 되고 세상은 지금보다 놀라울 만큼 좋은 곳이 될 것임을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해의 부족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 우리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 쉬운 멍에를 지는 비결만 터득하면 된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 USC(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철학과 교수이면서 저술과 강연을 통해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달라스 윌러드(Dallas Willard) 교수는 야구 선수를 흡모하는 청소년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야구 경기를 할 때면 한결같이 자신이 좋아하는 야구 선수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스타가 착용하고 있는 동일한 상표의 유니폼, 그가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종류

리이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경건한 생활을 위해 적절한 훈련을 하지 않고서 시험을 받을 때 그리스도처럼 행동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독교인은 적당한 육체의 훈련 없이 훌륭한 경기를 하기 바라는 야구 선수만큼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분이 이 사실을 명백히 이해했고, 이해한대로 삶을 살았다. 그분의 탄생을 둘러싸고 있는 상서로운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나사렛이라는 외딴 마을의 비천한 집에서 자랐다.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며 예수께서는 한 달 반 동안 광야에서 홀로 금식을 하셨다. 그 이후부터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많은 시간

침잠했던 활동들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고독, 침묵, 금식, 기도, 봉사 그리고 찬양과 같은 활동들이 구체적인 죄의 세력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데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지 그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그는 자신에게 적합한 훈련목록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적합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를 두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훈련의 활동들을 소개하고 있다:

| 절제의 훈련 | 참여의 훈련 |
|--------|--------|
| 독거     | 성경 탐구  |
| 침묵     | 예배     |
| 금식     | 찬양     |
| 검약     | 봉사     |
| 순결     | 기도     |
| 임이 무거움 | 진고백    |
| 희생     | 죄 고백   |
|        | 복종     |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 월 기다림의 은혜 (왕하18:17-37) 찬 217장

신해림이 예루살렘을 멸하기 위해 온갖 계교로 비난하고 항복을 회유했지만 히스기야는 침묵 정진했습니다(36). 앗수르는 정복적 백성의 혼합화기에 혼합종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런 난국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첫째, 어려울 때 침묵했습니다. 온갖 수모를 당한 히스기야는 백성과 함께 잠잠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신앙성장이 나쁠까 분명히 불어

할 때가 있지만 때론 조용히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둘째, 주의 행동을 기다렸습니다. 행동할 때 찬송하지만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는 전도자의 가르침과 같은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 진정한 기도가 생기고 겸손하게 되고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현실을 타개할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웅변보다 침묵의 가치를 배웁시다.

## 화 요시아의 개혁 (왕하23:1-16) 찬543장

오늘날 같이 비참한 시대에 요시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했습니다(26). 두루마리를 찾는 곳보다 그곳을 읽어 마음에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산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이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할 때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대로 실행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개혁운동은 놀라웠습니다. 성전 우상들과 산당을 모두 제하고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그 영향은 앗수르에 잡혀간 북쪽 이스라엘의 베엘 제단까지 가해졌습니다. 성경에 대한 재발견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시대에 급선무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 요시아 같은 가난한 마음 열심있는 헌신을 본받으십시오.

## 수 존귀한 말씀 (왕23:17-22) 찬241장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 첫째,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17).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17)을 귀히 여긴 태도는 말씀의 신적권위 때문입니다. 둘째,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나 자기 백성에게 직접 주시는 계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계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생명입니다. 이 계시(성경)에 근거를 둔 구원이 아니면 매우 위태롭습니다. 셋째,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200년 동안 북쪽을 더럽힌 우상숭배의 본산인 베엘에서 제단을 헐고 제사장들을 죽이는 요시아의 개혁은 다윗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개혁의 권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 목 개혁의 원천 (왕하23:23-35) 찬178장

요시아와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25) 이 개혁은 왕에게 무슨 교훈을 안겨주었습니까? 첫째, 요시아의 개혁은 구약사 안에 있어서 우뚝 솟은 산맥과 같습니다. 므낫세(55년)와 아몬(2년)의 57년의 통치기간, 철저한 혼합주의 형태로 떨어진 연약신앙은 그 뿌리를 찾지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목, 요시아와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25) 이 개혁은 왕에게 무슨 교훈을 안겨주었습니까? 첫째, 요시아의 개혁은 구약사 안에 있어서 우뚝 솟은 산맥과 같습니다. 므낫세(55년)와 아몬(2년)의 57년의 통치기간, 철저한 혼합주의 형태로 떨어진 연약신앙은 그 뿌리를 찾지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 금 기업 무를 자 (왕4:7-12) 찬399장

기업 무를 자를 중시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어떠했습니까? 첫째, 섬리는 기적보다 더 강하고 넓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기적은 없었지만 애굽에서 위대한 구속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모압의 한 가정자를 통해 더 크신 기적을 준비하셨습니다. 50년 후 다윗을, 1000년 후 오실 예수그리스도가 룻에게서 나오게 하신 일입니다. 섬리는 가적의 모태입니다. 둘째,

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업이란 구원과 그 열매입니다. 마치 가나안의 쫓과 꿀 그리고 수고해 얻는 그 땅의 결실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왕통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룻은 현숙한 여인으로 자기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심자기를 지고 여호와만을 따르는 자가 됐습니다. 섬리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것에 응답하십시오.

## 토 한나의 노래 (삼상2:1-10) 찬361장

한나의 기도에서 하나님나라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찬양이 있는 곳입니다. 신정 백성은 언제나 마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음은 지성의 공명현의 좌소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장벽이 없는 열린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골 3:21). 둘째,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한 곳입니다. 한나는 전쟁, 건강, 경제, 생사, 명예, 그리고 지위에 있어

서 주인은 여호와이심을 인정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인생관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사실을 어린 아이처럼 그대로 믿은 것이었습니다(행4:29). 셋째,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입니다(9-10). 그 나라의 통치의 양면이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양면 사역이 일어나는 우리 시대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룹시다.

(4면에서 계속)

우리 마음이 행복과 감사로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야곱의 147년 간의 긴 생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임종을 앞두고 침상에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젊어서 성취의 기쁨을 노래했을 때보다도, 많이 얻어서 기뻐 부르던 노래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일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감사의 노래야말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창 48장 말씀을 통하여 야곱은 눈에 보이는 유업으로 주어질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야곱과 같이 믿음으로 생애를 마감할 수 있는 성도가 됩

는 물론 후손들에게도 자신 있게 하나님나라의 유업과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면에서 계속)

우리가 누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이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경험한 3종의 재난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이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아니 시대의 긴박성을 절감하고 신앙생활에 증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었을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마12:41). 눈앞에 전개되어지는 재난 속에서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약함을 보면서 오나의 증거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할까? 천재(Act of God)에서 일하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역사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뉴욕에 미묘하지만 신앙 활동이 증가되는 되는 것처럼 재난의 시대에 주시는 믿음의 증진의 역사를 한껏 기대해 본다. 우리의 소원은 부흥이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  |   |   |  |   |  |   |
|--|---|---|--|---|--|---|
| <p><b>군포제일교회</b><br/>담임목사: 권대환<br/>주일 1부예배: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오후 2:30<br/>새벽기도: 오후 7:30</p>                                | <p><b>금관교회</b><br/>담임목사: 김정범<br/>주일 1부예배: 오전 8:00<br/>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오후 7:30</p>                       | <p><b>김포제일교회</b><br/>담임목사: 김동성<br/>주일 1부예배: 오전 7:40<br/>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오후 2:30<br/>새벽기도: 오후 7:30</p>                   | <p><b>광주신일장로교회</b><br/>담임목사: 한기승<br/>주일 1부예배: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30<br/>새벽기도: 오후 7:30<br/>주일 4부예배: 오후 8:00</p>   | <p><b>동경중앙교회</b><br/>담임목사: 이장현<br/>주일 1부예배: 오전 9: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30<br/>주일 3부예배: 오전 2:00<br/>주일 4부예배: 오후 8:00</p> | <p><b>돈돈한교회</b><br/>담임목사: 장항희<br/>주일 1부예배: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오후 7:30<br/>새벽기도: 오전 11:30<br/>새벽기도: 오후 9:30</p>                        | <p><b>로마 한인교회</b><br/>담임목사: 한병수<br/>주일 1부예배: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새벽기도: 오후 8:00</p>   |
| <p><b>명성교회</b><br/>담임목사: 김삼환<br/>주일 1부예배: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오후 7:30<br/>새벽기도: 오전 11:30<br/>새벽기도: 오후 4:30<br/>(1부부터 4부)</p> | <p><b>맨루버릴라델비아교회</b><br/>담임목사: 임건희<br/>주일 1부예배: 오전 9: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주일 3부예배: 오후 1:30<br/>새벽기도: 오후 7:00<br/>새벽기도: 오후 10:00</p> | <p><b>삼보교회</b><br/>담임목사: 박중운<br/>주일 1부예배: 오전 8:00<br/>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새벽기도: 오후 5:00<br/>(종교개혁을 위한 헌신)</p>                        | <p><b>사이연교회</b><br/>담임목사: 소장석<br/>주일 1부예배: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오후 7:30<br/>새벽기도: 오후 5:00</p>                         | <p><b>성문교회</b><br/>담임목사: 황정식<br/>주일 1부예배: 오전 9: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30<br/>주일 3부예배: 오전 2:30<br/>주일 4부예배: 오후 8:00</p>   | <p><b>성실교회</b><br/>담임목사: 김영록<br/>주일 1부예배: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오후 7:30<br/>새벽기도: 오후 3:00</p>  | <p><b>성일교회</b><br/>담임목사: 김경곤<br/>주일 1부예배: 오전 5:30<br/>주일 2부예배: 오전 7:00<br/>주일 3부예배: 오전 8:30<br/>주일 4부예배: 오전 11:30<br/>새벽기도: 오후 8:00<br/>새벽기도: 오후 11:30</p>                        |
| <p><b>수영로교회</b><br/>담임목사: 정병도<br/>주일 1부예배: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오후 2:30</p>   | <p><b>수정교회</b><br/>담임목사: 조일배<br/>주일 1부예배: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오후 7:30</p>                       | <p><b>승평교회</b><br/>담임목사: 박상훈<br/>주일 1부예배: 오전 8:00<br/>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오후 7:30</p>                                       | <p><b>시온교회</b><br/>담임목사: 김성진<br/>주일 1부예배: 오전 7:00<br/>주일 2부예배: 오전 9:0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00<br/>주일 4부예배: 오후 7:00<br/>새벽기도: 오후 5:00</p>                          | <p><b>신길교회</b><br/>담임목사: 이선용<br/>주일 1부예배: 오전 7:00<br/>주일 2부예배: 오전 9:0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오후 8:00</p>   | <p><b>신촌교회</b><br/>담임목사: 이정명<br/>주일 1부예배: 오전 6:00<br/>주일 2부예배: 오전 7:30<br/>주일 3부예배: 오전 9:30<br/>주일 4부예배: 오전 11:30<br/>주일 5부예배: 오후 1:30</p>   | <p><b>인암제일교회</b><br/>담임목사: 조윤<br/>주일 1부예배: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0:0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오전 11:30<br/>주일 5부예배: 오후 2:30<br/>새벽기도: 오후 7:30<br/>새벽기도: 오후 8:30</p> |
| <p><b>양곡교회</b><br/>담임목사: 지용수<br/>주일 1부예배: 오전 7:00<br/>주일 2부예배: 오전 9:0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오후 7:30<br/>새벽기도: 오전 10:30<br/>새벽기도: 오후 5:30</p>               | <p><b>왕성교회</b><br/>담임목사: 권자현<br/>주일 1부예배: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오후 11:30</p>                      | <p><b>장위제일교회</b><br/>담임목사: 김기현<br/>주일 1부예배: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오후 3:00<br/>새벽기도: 오후 5:00<br/>새벽기도: 오후 8:30</p> | <p><b>주안교회</b><br/>담임목사: 나경일<br/>주일 1부예배: 오전 8: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0:00<br/>주일 3부예배: 오전 12:00<br/>주일 4부예배: 오후 2:00<br/>주일 5부예배: 오후 4:00<br/>주일 6부예배: 오후 7:00</p> | <p><b>창대교회</b><br/>담임목사: 최희도<br/>주일 1부예배: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오후 7:00</p>   | <p><b>청주주노교회</b><br/>담임목사: 주서택<br/>주일 1부예배: 오전 9: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0:30<br/>주일 3부예배: 오전 12:00<br/>주일 4부예배: 오후 2:00<br/>주일 5부예배: 오후 7:00<br/>새벽기도: 오후 11:00<br/>새벽기도: 오후 3:30</p> | <p><b>충진교회</b><br/>담임목사: 박종순<br/>주일 1부예배: 오전 7:00<br/>주일 2부예배: 오전 8:30<br/>주일 3부예배: 오전 10:00<br/>주일 4부예배: 오전 11:30<br/>주일 5부예배: 오후 2:30<br/>주일 6부예배: 오후 11:30</p>                 |



DEC 20-23

SAN DIEGO TOWN & COUNTRY RESORT and CONVENTION CENTER

# Higher Calling: 2

## 더 높은 부르심

제4차

### 미주한인청년학생선교대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실  
 것이며(사55:6).  
 살리실 것이며(아5:4),  
 구하는 것을 찾게해 주실것입니다 (마7:7)  
 청년들이여!  
 우리를 찾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십시오.  
 “더 높은 부르심:2”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손인식목사  
베델한인교회

작년 샌디에고 GKYM 대회에 참가한 3천명의 2세 젊은이들을 보는 순간, 미래를 보는 눈이 확 열렸습니다. 여호수아 없는 모세는 골장난 것이고, 2세없는 1세들의 교회는 껌질뿐입니다. 올해 GKYM대회는 5000명이 몰려올 것입니다!



임현수목사  
토론토큰빛교회

2011 GKYM대회는 마지막 세대에 세계청년 선교 폭발의 핵이 될 것입니다. 젊은 청년 시절에 이런 부흥의 중심에 참여 할 수 있다는 것은 평생에 한번 오는 큰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대회일정** : 2011년 12월 20일(화) - 23일(금)  
**대회장** : San Diego Town & Country Resort and Convention Center  
**대상** : 18세 이상 청년 및 대학생, 유학생(영어, 한어권) 선착순 5000명  
**등록** : 당일등록없음 / 3박 4일 Hotel 숙박, 등록비 포함  
 Early Bird : 11월 7일까지 \$160 (USD)  
 (단체등록시 목회자 할인혜택)  
 1차 : 11월 30일까지 \$180 (USD)  
 2차 : 12월 11일까지 \$200 (USD)  
 3차 : 12월 20일까지 \$240 (USD)

**등록방법** : [www.gkymwest.org](http://www.gkymwest.org) 에서 직접 신청  
 Pay to the Order of : GKYM (메모란에 소속단체를 써주세요)



Dave Gibbons  
Newsong Church



Mike MacIntosh  
Horizon Christian Fellowship



Bayless Conley  
Answers with Bayless Conley



Jaeson Ma  
Campus Church Networks



Francis Chan  
Founder of Cornerstone Church



Yongkyu Lee  
Missionary to Mongolia



Chanho Ahn  
Missionary to Kenya



Yonghee Lee  
Esther Prayer Movement



Cheolho Han  
Mission Korea Partners



### GKYM VISION HEADQUARTERS

1636 W. 8th Street #100  
 Los Angeles, CA 90017  
 TEL : 213.389.5222  
 FAX : 213.389.5200  
 EMAIL : [gkym2011@gmail.com](mailto:gkym2011@gmail.com)

GKYM Vision 참가교회 : Abundant Life / AKPC / ANC / Bakersfield / Bill Graham Center / Bridge Community Church / BSBC / Capitola Central / CCCO / Chinese Christian Church / Choong Hyun Mission / Choong Shin Church / Church Everyday / Church of Dreambuild / Church of Joy / Church of Phillip / Church of Southland / CRM / Disciple Church / El Centro Korean / ESPC / Fairhaven Bible Chapel / FHC / First Korean Baptist / G.C.J.C / G.F.B.C / GMC / God's Church / Grace Church / Gracious Ark Church / Granada Hills Church / Hae Onum / Harwoody Church / Harvest Church / Harvest rock Church / Hawaii Hope Baptist / Hebron Church / Highland Cornerstone / Hillcrest CRC / Hillside of LACPC / Holy / Immanuel Church / Irvine Onnuri Church / Irvine Open Church / JGM / JHOUSE / Joy Center / Kingdom Harvest / KUMCSD / LA Hanni Church / LA Jesus Grace / Laguna Hills KUMC / LANGC / LAODC / LA남서동 온혜교회 / Life Spring / CMACUHK / Living Water / Livingstones Church / LJGC / LLCC / LMUMC / Lord's Light Church / Lubbock Baptist, Kairos / Mannam Presbyterian / Mi Ju One Way Church / Nasung Wesleyan / New Life Mission / New Life Oasis Church / New Life Vision Church / NSD of KMC / OC YoungNak Church / Open Heaven Church / Peniel Church / Podowon Baptist Church / Rock Harbor / Salvation Army / SD Hope Church / SD Sarang Church / Seoul Baptist Church / SUITA Church / Sungkwang Church / TGSC / Tian Yin Church / TKPC / Tucson True Light Church / TVPC / UMC / UPC, Cerritos Baptist / West LA온누리교회 / Westminster Baptist / Wonderful Church / World Mission / World Saints Church / WPCA / 갈보리 믿음교회 / 갈보리교회 / 갈보리새생명교회 / 과테말라 한인교회 / 나성 서남교회 / 남가주 / 남가주 꿈이 있는교회 / 남가주동신교회 / 드림교회 / 미주평안교회 / 밀양장로교회 / 벨리 언빌리교회 / 팜루버 빌라델비아교회 / 베이커스필드 한인 침례교회 / 매튼루지 한인 침례교회 / 사랑의 교회 / 새누리교회 / 새문인교회 / 새문교회 / 새한교회 / 샌디에고 주님의교회 / 샌디에고한빛교회 / 서부경로교회 / 세제이카페 선교교회 / 세인트루이스 한인 소망교회 / 아틀란티아교회 / 아틀란티아동신교회 / 알함브라교회 / 안남교회 / 예살렘(Bethel Korean Church) / 오렌지 한인교회 /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 온누리 Sunland / 온누리 베이커스필드 / 우리교회 / 온성교회 / 은혜의 빛 장로교회 / 직은자 교회 / 조선족 선교교회 / 주사랑 / 주사랑교회 / 은빛교회 / 부산 침례교회 / 부산 침례교회 / 트라이벨리 장로교회 / 트라이벨리 한인장로교회 / 평화교회 / 피닉스 장로교회 / 하나교회 / 하늘샘교회 / 하와이 중앙 장로교회 / 한사랑교회 / 호신나

주관 : GKYM Vision 준비위원회 / KCCCUA 대학생선교회  
 주최 : 미주성서화운동본부 / GAP(Global Assistance Partner: 협력선교회)  
 후원 : 남가주기독교 교회협의회 /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 남가주목사회 / 샌디에고교역자협의회 / KOSTA / 남선협 / 환돌선교회 / 미주복음방송 / 미주기독교방송 / CGNTV / CTS / KCMUSA / 한국일보 / 크리스천헤럴드 / 미주크리스찬신문 / 크리스찬뉴스워크 / 크리스찬투데이 / 기독교일보



[www.gkymwest.org](http://www.gkymwest.org)